

# 건축문화

ARCHITECTURE AND CULTURE

May 2006

[www.ancbook.com](http://www.ancbook.com)

지령 300호 기념호

프랑스 건축가 **미셸 카강** 소규모 세대를 위한 아파트 설계

외교사료관 | 디지털 매직 스페이스 | 파주 청문각 사옥

Serial 집을 꿈꾸다: 베어 리버 골프 리조트 기본설계 I





# C o n t e n t s

## S e r i a l F o r u m

50 한국건축문화포럼 04\_ 건축연구원을 만들어야 한다 이충기 | (주)한메건축사사무소 대표

## P r o j e c t s

52 외교사료관 설계\_김광현(서울대학교) +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_(주)남강종합건설

68 디지털 매직 스페이스 Digital Magic Space 설계\_(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_금호건설

82 파주 청문각 사옥 설계\_(주)아름건축사사무소 시공\_시원ENG종합건설(주)

## A r c h i t e c t

Michel W. KAGAN

102 미셸 카강의 작품: 빛의 선물 리처드 잉거솔 | 시리큐스 대학

106 건축가, 미셸 카강이 생각하는 주거건축

108 Cite d'Artistes, Parc Citroën-Cevennes, Paris 15th Arrondissement

114 50 Social Housing Units, Cité Fougères, Paris 20th Arrondissement

120 70 Apartments, Paris 14th Arrondissement

128 Renovation and Extension of a Town House, Paris 17th Arrondissement

134 Building with 83 Apartments and Commercial Spaces, Port St Martin, Rennes (35)

142 Renovation of an Apartment, Rue des Beaux-Arts, Paris 6th Arrondissement

146 Residence for Students and Young workers, Paris 13th Arrondissement

148 100 Apartments, ZAC of Beauregard, Rennes (35)

150 Apartments and Commercial Spaces, Clichy la Garenne

152 인터뷰: 한국의 현대주거를 위한 미셸 카강과 나는 대화 정재현 | 경희대학교 건축대학원

## S e r i a l

집을 꿈꾸다: 베어 리버 골프 리조트

157 기본설계 I 이한중 | 스튜디오 2105

건축의 새로운 실천: 우회와 고해상도

170 분화와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장 르노디 하태석/래일레 아센시오 + 데이빗 마

## R e p o r t

178 urban report | 베이징 北京\_올림픽을 위한 도시 이안 | 칭화대학 건축학원

182 competition | 전곡선사박물관 '국제설계공모'

186 lecture | 안드레스 페레아 오르테가의 건축강연회

188 urban issue | 서울시 신청사

192 exhibition | 만국공원의 기억전

196 engineering | 서대문 구립 이진아 도서관 창호 시스템

198 product | 가정에서도 즐길 수 있는 골프연습시스템, X-golf

건축문화



# MICHEL W. KAGAN

MICHEL KAGAN WAS BORN IN PARIS IN 1953 AND STUDIED ARCHITECTURE AT THE UNIVERSITY OF PARIS 7 - GRAND PALAIS. HE RECEIVED HIS DIPLOMA IN ARCHITECTURE (DPLG) IN 1979 WITH HENRI CIRIANI AND WAS AWARDED THE THORLET PRIZE IN ARTS-SCIENCES-LETTERS FROM THE ACADEMIE FRANCAISE. HE RECEIVED THE ALBERTI PRIZE IN 1977; OBTAINED THE "ALBUMS DE LA JEUNE ARCHITECTURE" AND WON THE GRANT "VILLA MÉDICIS HORS LES MURS" IN 1981; HE WAS NOMINATED FOR THE MIES VAN DER ROHE EUROPEAN ARCHITECTURE PRIZE IN 1990 AND 1992 AS WELL AS THE PRIZE FOR A FIRST WORK IN 1991, AND FOR THE "PRIX DE L'EQUERRE D'ARGENT DU MONITEUR" IN 1992. HE WAS AWARDED THE FIRST PRIZE IN INTERNATIONAL ARCHITECTURE FROM THE BUENOS-AIRES BIENNIAL IN 1991 FOR THE "CITÉ TECHNIQUE ET ADMINISTRATIVE DE LA VILLE DE PARIS" AND THE SILVER MEDAL FROM THE ACADEMIE D'ARCHITECTURE IN 1997 FOR HIS WORK.



editor, KANG KWON, Jeongye  
editorial design, KANG Hyun-Jung, LEE Ji-Young (Michel W. KAGAN)  
english to Korean translator, KWON, Lucian, MOON, Bong-Ju  
source, Michel W. KAGAN

Michel W. KAGAN  
collaborators, CARPENTIER Catherine, CURRAN John, DE MATEO Javier, ETCHEVERRY Brice, GUILLAUMAUD Alexis, LEE Ji-Young, LEHMANN Valerie, LOVERA David, REGNIER Nathalie, ZAFFARONI Jeremie  
all texts by Nathalie Regnier.  
French to English translator (the texts of the projects, biography and the text about housing), Dana Carey  
French to English translator (the interview), Rebecca Williamson



“ 현재 우리가 살고 있고 관심을 두고 있는 건축과 도시의 범주는 그다지 단순하지도 이상적인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오히려 사실을 얻은 안  
수록 현실세계의 복잡성과 불확정성에 대한 열려만이 나올 뿐이다. 그럼에도 불가피적인 불확정성은 끊임없이 생의 활력소가 되어 우리 의사가 되  
어 왔고 도시가 되었다. 우리가 고민하는 건축과 도시란 인간의 삶과 유리되지 않고 휴먼스케일에 맞추어져야 하며, 그에 걸맞는 도시적 랜드스케이프  
를 제공해야 하며, 또한 삶과 유리되지 않는 삶의 환경으로서 건축과 도시를 구축해야 하는 우리의 책무를 다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여튼 우리를 둘러  
싼 현재적 상황은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지점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소개되는 프랑스 건축가 미셀 카강과 그의  
주거 프로젝트들에서 도시적 한계성과 가능성을 극복하고 찾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이 점이 우리에게 새로운 세로  
운 각도에서 주거 공공성에 문제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의 디자인 개념과 실천들은 주거프로젝트를 통해 보여준 것이며, 프로  
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고민들은 미셀 카강의 주거계획의 원칙으로서 설명될 것이다. 또한 그가 원상에서 무뎠다는 문제는 인터뷰를 통해 우리  
의 문제와 인대하고 나누게 될 것이다. (편집자 주) ”

Michel Kagan is currently Professor at the Architecture School of Paris-Belleville, Architect-Consultant of France for the Ministry of Public Facilities, and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Le Corbusier Foundation. He is also the consulting architect for the tramway project of the city of Reims, and a member of the scientific committee of LIPAU of the University of Milan. His career in architecture and teaching began in the United States at Columbia University in New York where he taught from 1981 to 1984, producing his first projects. Subsequently he was a visiting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Quebec in Montreal in (1982-83-86), Syracuse University in New York (1986), Director of the Study Abroad program at the University of Toronto (1984-1988). In 1985, he was curator and coauthor with Kenneth Frampton of an exhibition and work entitled "New Directions in Modern Architecture". Upon his return to France in 1986, he was professor at the Architecture School of Geneva from 1989 to 1994, at the Architecture School of Lille from 1994 to 1998 and since 1998, at the Architecture School of Paris-Belleville.

His agency has been located in Paris since 1987 and is dedicated to the conception and project execution of public edifices, schools, university buildings, administration centers and apartment complexes. The agency participates in many national and international architecture competitions. It is also developing renovation and interior design projects of private residences and stores as well as renovations of apartments in association with the architect Nathalie Regnier. Its first buildings attracted international attention, in particular the "Cite Technique et Administrative de la ville de Paris" built in the thirteenth arrondissement in 1991, and the "Cite d'artistes" situated the length of the Parc Citroen-Cevennes in the fifteenth arrondissement in 1992. It also designed the head office of the OPHLM (social housing organization) of Alencon in 1997; a university building in Cergy Pontoise in 1999; housing in Paris in the twentieth arrondissement in 1998 and in the fourteenth arrondissement in 2000; a school in Noisy-Le-Grand in 2001; the renovation of a town house in Paris' seventeenth arrondissement in 2003 and an apartment building in Rennes completed in 2005.

For Michel Kagan, the architectural project is useful in revealing and analysing the city's particular set of problems. He works towards the reinterpretation of the "architectural promenade", not only as a contemplative exercise, but also for what it can best offer culturally to the urban space: it assures the identification of functions and spaces that find their purpose in the quotidian, to put into proportion the near and the far. Rather than a culture of congestion, Michel Kagan prefers "apartment blocks that breathe, buildings that draw in the light, so that the people live the architecture."

미셀 카강은 1953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다. 파리7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했으며 대상을 수상했다. 1979년 앙리 시리아나와 함께 건축학 위(DPLG)를 받았고, 프랑스 예술학회로부터 Thorlet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977년에는 알베르티 상을 수상했고 1981년에는 그의 작품이 "젊은 건축물"에 선정되었고, "Villa Medicis hors les murs"로 수상했다. 1990년과 1992년에는 미스반데로 유럽건축가 상의 후보에 올랐고, 1991년 First Work로, 1992년에는 "Prix de l'equerre d'Argent du Moniteur"로 수상했다. 1991년에는 무에노스 아이레스 비엔날레의 국제건축부문에서 "Cite Technique et Administrative de la ville de Paris"로 1등상을 수상했고 1997년에는 Academie d'Architecture로 은메달을 수상했다.

미셀 카강은 현재 파리 벨빌대학 건축과 교수 및 프랑스 공공시설부문 건축자문위원, 그리고 로 꼬르뷔제 재단의 이사회의 임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또한 프랑스 북부도시, 랭스의 철도프로젝트 자문위원 및 밀라노 대학 LIPAU의 과학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그의 교육자로서의 경력은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에서 시작되었다(1981-1984). 1982년부터 1986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캐나다, 몬트리올의 퀘벡대학에서, 1986년에는 뉴욕의 시라큐스 대학에서 방문교수 자격으로 머물렀고, 토론토 대학에서는 해외교육프로그램의 책임자로 활동하기도 했다(1984-1988). 1985년, 그는 건축이론가 케네스 프램프턴과 "현대건축의 새로운 방향"이라는 제목의 책을 함께 집필하고, 전사회의 공동 큐레이터로서 작업했다. 1986년 프랑스로 돌아간 후 제네바 건축학교의 교수로 재직했고(1989-94), 린 건축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후(1994-1998), 현재는 1998년 이후로 파리, 벨빌대학의 건축학교에서 강의 중이다.

1987년에 출판한 그의 파리 사무실에서는 공공시설, 학교, 대학건물, 정부청사, 아파트단지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다수의 국내외 현상설계에 참가하기도 했고, 또한 개인주택과 가게 및 아파트 리노베이션과 같은 인터리어 작업도 건축과 Nathalie Regnier의 공동작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가 국제적인 관심을 얻게 된 첫 번째 작품은 1991년 13구에 지어진 "Cite Technique et Administrative de la ville de Paris(파리도르청)"과 1992년 15구, 시트르앵 공원에 나란히 지어진 "Cite d'artistes(예술가촌 아파트)"이다. 1997년에는 알랑송에 OPHLM 임대주택(구)의 본사 건물을 계획했고, 1999년에는 세로지 몽트뢰즈에 대학건물을, 1998년에는 파리 20구, 2000년에는 14구에 각각 공동주택을 계획했으며, 2001년에는 Noisy-Le-Grand에 학교를, 2003년에는 파리 17구에 타운하우스 리노베이션을, 2005년에는 랭스에 아파트단지를 완성했다.

미셀 카강에게 건축프로젝트는 도시가 지닌 다발처럼 얽힌 특수한 문제들을 표면화시키고 해석하는데 효과적이다. 그는 '건축적 산책'의 재해석을 목표로 작업을 하는데, 이는 형상을 위한 공간이면서 동시에 도시에 제한할 수 있는 가장 문화적인 공간이 될 수 있다. 일상 속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기능과 공간을 확인시키며, 가깝고 먼 요소들을 적절히 비례감있게 배치한다. 과민하고 복잡한 문화보다 미셀 카강은 "아파트 단지가 숨을 쉬고, 건물에는 빛이 드리워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건축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좋아한다.





# THE WORK OF MICHEL KAGAN : A GIFT OF LUMINOSITY

by Richard Ingersoll, Syracuse University in Florence, Italy

Paris, "the city of light", has a fundamental role in the work of Michel Kagan. Aside from transmitting the Enlightenment's legacy of rational method, and the inimitable grandeur of the proud lights of the metropolis, Paris attracts a special prismatic light that penetrates form through the artful manipulation of contrasting surfaces and reflected planes. This modern sensibility became the underlying obsession of Impressionist painters and their Cubist progeny, and it inspired much of the architectural inventiveness of Le Corbusier. Kagan's debt to Le Corbusier, Alvar Aalto, Giuseppe Terragni, and other Modernist masters is direct and transparent. He clearly demonstrated his desire to refine their language of form based on abstract geometry in his temporary pavilion built in a park in Geneva in 1992. For an architect working in this tradition, every program for building presents both the conservative need for an appropriate figural solution to represent institutions and the pretext for radical spatial investigations in the search for splendid luminosity.

While Paris is the munificent center of patronage for French culture, it is also a cruel mistress to most of those hoping to serve. As with so many other talented French architects who desire to work on a large scale, Kagan has pursued a career of public architecture through the highly restrictive procedures of government sponsored competitions. This long experience of preparing credible models for housing, schools, institutional complexes, and government buildings, while it has permitted him to pursue extended research into architectural typology and urbanism has not yielded the steady flow of practice offered by other forms of patronage. As a consequence his built works come in clusters according to favourable outcomes of competitions: two large projects won in the late 1980s and four in the late 1990s. The French system of competitions, while it serves the democratic ideal of an arbitrated means of distributing public works, also breeds the disappointment of producing numerous worthy projects that do not come to terms due to bureaucratic complications. Several of Kagan's best winning schemes, such as

the industrial plant for Reuilly and the French embassy in Zimbabwe, have languished unbuilt.

From the time of his earliest published project, "House at an intersection", which won the Alberti Prize in 1978, Michel Kagan has demonstrated a desire to approach the design of a building from the section. Pursuing an idea close to Le Corbusier's 1920 prototype for Artisan dwellings, a cube was bisected by a diagonal mezzanine loft. This liberation of the section, which exposes two levels to a double-height space, recurs in both the plans for dwellings, such as Kagan's own loft in Montmartre or in the artists units at Cite d'Artistes, and those of institutional projects, such as the competition for the Palace of Justice at Melun (1994). In the research building for University of Cergy-Pontoise (1999) the open section reveals the virtue of exposing the circulation to different levels, charging the plan with the sense of an articulated itinerary, what Le Corbusier referred to as an "architectural promenade". The privileged pathway through the section of a building, with its play of vertical and horizontal slots, instills a compelling sense of interactive orientation. In almost every Kagan project there is also an interior courtyard, a more secluded opening to gather light. Around these core ideas of the open section and the interior court the surfaces are frequently delaminated to create a series of layered planes that generate an active dialogue between shadow and light.

The first competition for which Michel Kagan received international attention, the Hong Kong Peak, 1982, demonstrates one of four compositional strategies for deploying an architectural promenade that have become his working grammar for approaching architectural morphology. The peak, which was planned for an exposed hilltop site that needed to address open landscapes in opposite directions, strikes a single grand axis along the crest of the hill off which separate volumes are attached in balanced asymmetry. This articulated spine was an embryo in Kagan's student thesis project of 1978: a half-kilometer long bar

of housing in which the section of the bar is expanded and contracted to allow cross-axial movements. He contributed a similar monumental axis to some of Henri Ciriani's housing schemes during the two years he worked for him in the late 1970s. Such a strategy creates a recognizable urban form for ex-urban circumstances that Italian theorist Vittorio Gregotti has referred to as an "architecture of the territory". Thus when confronted by a condition of vast openness, such as in the competition for Tele Defense (1984) which was awarded an honorable mention-- or the realized project for the Cite d'Artistes, where the volumes of a cubic, cylindrical, and triangular prism are positioned along an exposed walkway, an uncompromised spinal organization established a rigorous sense of order for a place of undetermined scale.

An alternative strategy for addressing the new megalopolitan scale of European cities has been to provide a large, layered frame within which various volumes can be arranged. The frame can be positioned either vertically, as with the competition for Ministry of Finance complex at Noisy-Le-Grand (1992), or horizontally, as with Kagan's unbuilt winning scheme for the French Embassy in Harare, Zimbabwe (1989). The major volumes of the competition entry for the bank of France headquarters in Montpellier (1993) are likewise held together with a thin horizontal frame. The virtue of this organizational method, which corresponds to Henri Ciriani's invocation to create the "urban room" (la piece urbaine) with large urban projects, are evident at the Cite Technique (1991), where a long, freestanding plane serves to demarcate the complex against the immense scale of the Peripherique highway, while the hovering undulated roof provides a unifying shelter for three different volumes with varying functions.

This method of orthogonal framing, close in spirit to the work of Giuseppe Terragni, addresses both the majestic scale of the metropolis, giving it a conventional geometric reference as a unified block, while protecting the intimate dimension of working



1. Jules Ferry School, Noisy-le-Grand, Facade, 2000.  
노와지 르 그랑의 쥘 페리 유아학교, 2000.
2. Entry Hall, Cergy-Pontoise, 1999.  
세르지 퐁투와즈 대학교의 연구동 건물 입구, 1999.
3. Cite Technique, Wall and Roof, 1991, 시테 테크니크, 1991.
4. Pavilion Geneva, 1992. 파빌리온 제네바, 1992.
5. Siege social de l'OPHLM d'Alençon, 알랑송의 사회센터



and living environments in the interior voids of courtyards and atria. As a type it constitutes a first step toward what Kagan theorizes as the "European grid" that is, an urban pattern that might have the overall rationality and flexibility of the American grid, while maintaining a marked cultural distinction in the abstract and synopated distribution of planes and surfaces.

For more confined sites Kagan often takes the strategy of the single axis and either crosses it with a secondary axis to create a cruciform composition relating to the multiple directionality of the city, or adds an eccentric volume to one end, creating a body with a head. In the competition entry for the Music School at Nanterre (1991) the volumes for auditoria and practice rooms hang off of the intersecting axes giving the complex a dynamic pinwheel organization. In the competition for a Children's recreational center, also at Nanterre (1992), the flexibility of the axial type of composition is enriched through the synopated placement of a series of small courts that serve a variety of semi-secluded, ancillary activities like art classes, day-care, and exhibitions. The scheme benefits from the legibility of an overall axial organization while maintaining a secondary reading as an intimate village. In the competition for the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in Geneva (1993, second prize), the project strikes a major organizational axis to maintain pre-existing urban alignments and adds an ovoid figure to house the meeting rooms toward the busiest intersection. This type will be reworked on a smaller scale for the social center at Alençon, where the rounded figure holds down the acute corner of the site, protecting a looser composition of staggered planes in the inner courtyard.

Most of the sites for the competitions to which Kagan has been invited involve very dense contexts for which his most frequent solution is a composition of sliding volumes. The space of slippage between the two volumes in the winning, but unbuilt, project for an industrial complex at Reuilly (1991), becomes charged with potential for circulation, courtyards, and the artful

disposition of reflecting surfaces. The extremely tight site for a music conservatory on rue de Rochechouart, Paris 10e (1995), would have been opened up through a similar slipping of volumes. At the Centre culturel de Champs Manceaux in Rennes horizontal planes have been slid like an open drawer to create a dynamic play of light in the circulation core.

Many of Kagan's housing schemes, including the competition for 22 units at Breteuil, Paris (1989) and the two recently completed Parisian projects at Cite Fougères et rue de l'Amiral Mouchez, employ a subtle slipping of volumes that registers on the facade. On the latter the crate-like brise-soleils have been gracefully detached from the wall and shifted up and over from the ground floor and the end wall to perform its shading effects. From this operating language of compositional solutions Kagan proceeds toward what Le Corbusier once termed "correct syntax and the right words". At the kindergarten school of Jules Ferry, in the Parisian suburb of Noisy-le-Grand one finds the familiar modern vocabulary of strip windows, fin-like sun-shades, detached volumes, cut outs and layered walls, which have been combined at a scale that addresses the dimension of small children. The low awning on the front facade is folded upward to indicate the entry and this creates a wonderfully dynamic contrast of light and shade. Each classroom is treated like an apartment with subdivided spaces on the exterior edges to give the child the feeling of being at home.

As in all his projects the Jules Ferry school exemplifies a masterful handling of slots of fenestration, catwalks, deep sunshades, long cut outs, and dividing planes that have been used as abstract elements in a scintillating game of solids and voids. The result is a dialogue of forms that are activated by natural light. If one recognizes references to Terragni's cornice fins, to Alito's use of clerestories, or even to Art Deco window mullions, there is nothing in Kagan's designs that is gratuitous or predetermined by style. Each formal decision relates back to the dictates of the

section and to the functions of the program. He treats architecture as a language for a city that is made of disconnected orthogonal fragments. Each work is organized around the conventions of human orientation and circulation but is then nuanced with a passion for interacting geometric shapes. The success of the interior is partly the contribution of Kagan's wife and partner Nathalie Regnier who has specialized during the past decade in designing the interiors of his works. Kagan's commitment to the modern Rationalist tradition is motivated with a certain respect for the constraints of urbanism; he is intent on making something new without seeming overtly original. The clever geometric play in the spaces between the layers of the walls, the slots of light, the rotation of planes, the echoing of volumes, the inversion of repeated elements is achieved with forms that are familiar in their clean, machine-tooled modernity but absolutely fresh as a gift of luminosity.





## 미셀 카강의 작품 : 빛의 선물 리처드 잉거솔

“빛의 도시” 파리는 미셀 카강의 작업에 있어 근본적인 역할 한 가지를 띠고 있다. 18세기 계몽운동이 남긴 합리적 방식과 대도시 파리의 당당한 조명이 지니는 비길 데 없는 화려함을 발산하는 외에도, 파리는 한 가지 특별하고도 다채로운 빛을 끌어들이는 바, 이 빛은 서로 대비되는 표면과 반사면의 교묘한 처리를 통해 모든 형태를 관통하여 나타난다. 이와 같은 현대적 감각은 인상파 화가들과 거거서 생겨난 입체파 화가들의 집착 대상이 됐고,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적 창의력을 위한 밑거름이 됐다. 카강이 르 코르뷔지에, 알바 알토, 주세페 테라니 등 모더니즘 건축의 거장들에게서 받은 영향은 직접적이고 뚜렷하다. 그는 1992년 제네바의 어느 공원에 세운 그의 파빌리온에서 추상적 기하학을 바탕으로 한 그들의 형태 언어를 한층 더 다듬으려는 욕구를 분명하게 내보였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 작업하는 건축가에게 있어 건물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은 보수적 차원에서는 적절한 형상적 해법을 찾기 위한 요구인 동시에 급진적 차원에서는 화려한 광휘를 찾아내려는 공간적 실험을 위한 구실이기도 하다.

파리라는 도시는 프랑스의 문화를 아낌없이 후원하는 단골손님 같은 곳이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바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혹독한 어수선 같은 곳이기도 하다.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맡고 싶어 하는 프랑스의 수많은 건축가들과 마찬가지로 카강 역시 철학적 제약 조건이 대단히 까다로운 정부 후원 공모전을 통해 공공건축의 길을 걸어왔다. 이처럼 오랫동안 주택, 학교, 기관 단지, 그리고 정부 건물 등을 위한 신뢰도 높은 모델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경험을 쌓는 동시에 다른 유형의 단골 고객들이 제공하는 작업 기회에서는 얻을 수 없는 건축적 유형학과 도시계획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그의 작업은 공모전의 결과가 좋을 때 무더기로 사용되는 양상을 띠었다. 예를 들면 1980년대 말에는 대형 프로젝트 두 개를 맡았고 1990년대 말에는 네 개를 맡았다. 프랑스의 공모전 시스템은 한편으로 공공사업을 적절히 분배하는 수단으로서 민주주의의 이상을 따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복잡한 관료체제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좋은 프로젝트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 카강의 경우 르위의 산업공장이란든가 짐바브웨 주택 프랑

스 대사관 등과 같은 최우수 당선작 설계가 시공되지 못하는 불운을 겪었다.

미셀 카강이 최초로 발표한 ‘교차로의 주택’ 프로젝트는 1978년에 알베르티 상을 받았는데, 그는 그 시기부터 줄곧 건물 디자인을 단면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욕구를 보이고 있다. 1920년 르 코르뷔지에가 아르티장 주택을 위해 만든 프로토타입과 흡사한 개념에 따라 하나의 정육면체를 대각선 방향의 중층 로프트로 양분했다. 이처럼 단면을 드러내 2개의 층을 2개 층 높이의 공간에 노출시키는 개념은 에컨데 몽마르트에 있는 카강 자신의 로프트나 시테 다르티스테의 예술가촌 아파트 등과 같은 주거지 설계와 물림에 있는 정의의 궁전(1994)을 위한 공모전과 같은 기관 프로젝트 모두에서 나타난다. 세르지 툴루이즈 대학교의 연구동 건물(1999)에서는 개방된 단면이 여러 층으로 이어지는 통선을 노출시키는 장점을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프로젝트에 ‘분절된 노정’이라는 관념을 부여했는데, 이를 르 코르뷔지에는 ‘건축적 산책로’라 불렀다. 건물의 단면을 통과하는 특별한 통로는 수직, 수평의 갖가지 흠과 어우러져 상호작용하는 방향 감각을 강하게 불러일으킨다. 카강의 프로젝트에는 또 거의 모두 옥내 인마당이 있는데, 이는 비교적 호젓한 개구부로서 자연광을 모아들인다. 개방된 단면과 옥내 인마당이라는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표면은 종종 얇은 층으로 갈라져, 빛과 그림자 사이에 적극적인 대화를 유발시키는 일련의 레이어 평면을 만든다.

홍콩 피크 프로젝트(1982)는 미셀 카강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최초의 공모전으로, 건축적 형태학에 접근하기 위한 그의 작업 문법이 된 건축적 산책로를 전개하기 위한 네 가지 구성 전략 중 한 가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민둥산 꼭대기를 위해 설계된 이 피크 프로젝트는 서로 반대 방향의 개방된 경관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는데, 산꼭대기를 따라 하나의 거대한 축이 펼쳐나가고, 독립된 여러 볼륨이 균형 잡힌 비대칭을 이루며 그 축에 부착되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처럼 뚜렷한 척추 형태를 띠지만, 1978년 카강의 학생 논문에서는 아직 테아 형태였다. 논문은 500미터 길이의 막대한 주택 프로젝트로, 막대한 단면이 팽창·수축하면서 축선을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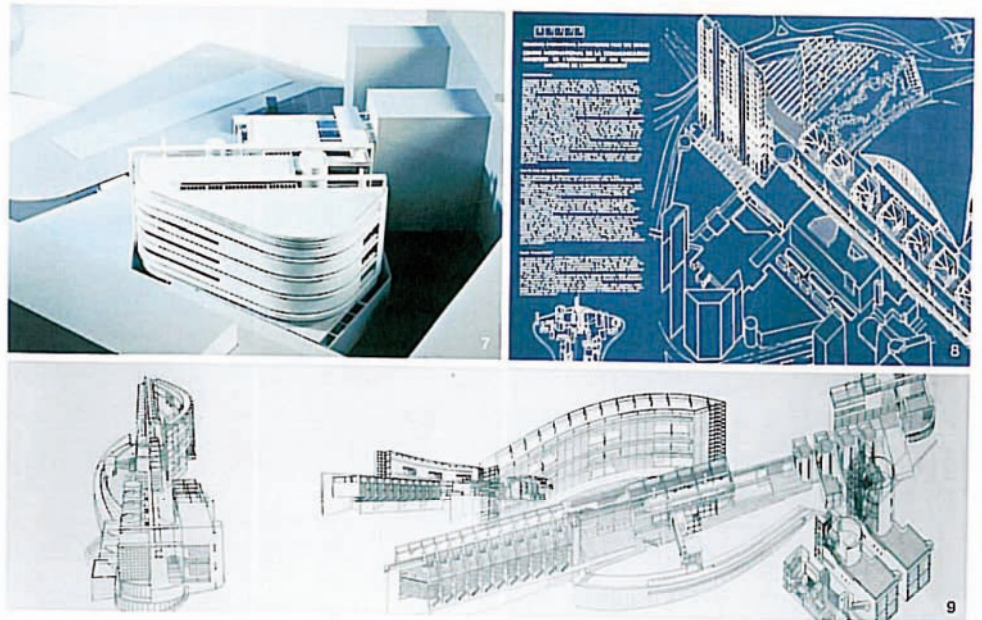
로지르는 움직임을 허용한다. 그는 1970년대 말에 앙리 시리아니를 위해 일하던 2년 동안 시리아니의 주택 설계에 이와 비슷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축선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러한 전략은 도시 밖 환경에서 두드러지는 도시적 형태를 만드는데, 이를 이탈리아의 이론가 비토리오 그레고리는 ‘영역권의 건축’이라 불렀다. 따라서 스케일이 명확하지 않은 장소에서 광대한 개방 상태라는 조건에 마주치면, 굽힘 없는 척추 형태 조직에 의해 엄격히 정돈된 느낌이 자리 잡았다. 테트 데팡스 공모전에서 가장(1984)으로 뽑혔던 작품이 그 한 예이며, 실제로 건축된 시테 다르티스테 역시 이에 해당되는 예로, 이 작품에서는 정육면체, 원동형, 삼각 프리즘 형태의 볼륨이 노출된 통로를 따라 배치됐다.

유럽의 도시가 띠기 시작하고 있는 메가폴리스적 스케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한 가지 전략은 레이어를 이루는 커다란 틀을 마련하여 그 안에 다양한 볼륨을 배치하는 것이었다. 이 틀은 노외지 로그랑의 재무부 복합건물 공모전(1992)과 같이 수직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고, 짐바브웨의 수도 하라레의 프랑스 대사관 공모전(1989)에서 수상했으나 건축되지는 않은 작품과 같이 수평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 몽펠리에에 있는 프랑스 은행 본부 공모전(1993) 출품작의 주요 볼륨들은 이처럼 수평의 얇은 틀 하나에 의해 묶여 있다. 대규모의 도시계획 프로젝트에서 ‘도시의 여지’를 만들자는 앙리 시리아니의 호소와 일치하는 이와 같은 조직법의 장점은 시테 테크니크(1991)에서도 드러난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페리 페리크 순환대로의 거대한 스케일을 배경으로 독립구조의 기다란 평면이 건물의 경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고, 위에 떠 있는 굽이치는 지붕은 다양한 기능을 지니는 세 개의 서로 다른 볼륨을 통합하는 보호막이 되어 준다.

직교하는 틀을 구성하는 이와 같은 기법은 이념상 주세페 테라니의 작업과 비슷한데, 프로젝트에 하나의 통일된 볼륨으로서 전통적인 기하학적 구별점을 부여함으로써 메트로폴리스의 웅대한 스케일 문제를 다루는 동시에, 안뜰과 인마당으로 이루어진 내부 보이드 내의 생활 및 작업환경의 친밀한 부분을 보호해 준다. 하나의 유형으로 볼 때 이 프로젝트는 카강이 ‘유럽식 그리드’라는 이름으로



6. Cultural Center of Champs Manceaux, Rennes.  
르네의 문화센터.  
7. Model, Industrial Complex, Reuilly, 1991.  
르위의 산업단지 모델, 1991.  
8. Competition for Tete Defense, Honorable Mention, 1984.  
테트 데방스 공모전, 가작, 1984.  
9. The Peak, Hong Kong, Competition entry, 1982.  
홍콩 피크 공모전 프로젝트, 1982.



이론적 체계를 세워 나가는 첫걸음에 해당한다. 그것은 미국식 그리드의 전반적 합리성과 유연성을 갖추는 동시에 평면과 표면의 추상적이고도 축약적인 배치에서 문화적인 차별성을 유지하려는 하나의 도시 패턴이다.

좀 더 제한된 부지일 경우 카강은 종종 단일축선 전략을 채택하며, 그것을 또 하나의 축선으로 가로질러 도시의 특화적인 방향성과 연관된 십자 모양의 구조를 만들거나, 축선의 한쪽 끝에 중심에서 벗어난 볼륨을 추가하여 머리가 달린 몸통을 만드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낭테르의 음악학교 공모전(1991) 출품작에서는 강당과 연습실의 볼륨을 교차하는 축선에서 벗어나게 매달아 놓은 형태를 취함으로써 전체 프로젝트가 역동적인 바람개비 구조를 띠게 했다. 역시 낭테르의 어린이 레크리에이션 센터 공모전(1992)에서는 미술수업, 탁아소, 전시회 등과 같이 반격리된 다양한 보조 활동에 활용되는 일련의 작은 인마당을 축약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축선 방식의 구성이 지니는 유연성이 더욱 강화된다. 이러한 설계는 전체적인 축선 중심 구성이 띠는 명확성에 힘입는 한편 천명한 마을이라는 또 하나의 해석을 안고 있을 수 있게 해 준다. 제네바의 세계 기성기구 공모전(1993, 2위 입상)에서 그의 프로젝트는 커다란 구성상의 축선을 만들어 기존 도시의 배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장 동행량이 많은 교차로를 향하는 달걀꼴 형상을 추가하여 회의실을 수용한다. 이와 같은 유형은 다시 손질되어 알랑송의 사회센터에서 좀 더 작은 규모로 적용된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동그런 형상이 단지의 뾰족한 모서리를 고정시켜, 내부에 있는 인마당의 엮은 평면으로 이루어진 좀 더 단순한 구성을 잡아준다.

카강이 출품을 의뢰받은 공모전의 부지는 대부분 대단히 밀집된 환경에 놓여 있는데, 이에 대해 가장 자주 쓰이는 해법은 미끄러지는 볼륨을 이용한 구성법이다. 르위의 산업단지(1991)은 당선되었으나 시공되지는 않은 프로젝트로, 두 개의 볼륨 사이에서 미끄러지는 공간은 동선, 인마당 및 반사면의 교묘한 배치 등으로 가득 차 있다. 파리 10e의 로슈슈아르 가에 있는 극도로 딱딱한 부지의 음악학교를 위한 프로젝트(1995)도 이와 비슷하게 볼륨들의 미끄러짐을 통해 개방시켰을 것이다. 렌의 상임소 문화센터에서는 수평면

이 마치 열려 있는 서랍처럼 미끄러지며 동선의 중심부에서 빛의 역동적 유희를 만들어낸다.

파리 브르퇴이의 22가구 공모전(1989), 그리고 최근 파리의 시테 푸제르와 라미랑무세 등 두 곳에 시공된 프로젝트에서 보듯, 카강의 주택 설계에서는 볼륨의 미묘한 미끄러짐을 파사드 위로 표시시키는 기법이 자주 동원된다. 후자의 경우 상자 모양의 차일을 밖으로부터 매끄럽게 분리시켜, 1층과 앞벽 위로 밀어 올려 햇볕을 가리는 효과를 지니게 했다.

이러한 구성상의 해법이라는 운용의 언어로부터 카강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르 코르뷔지에가 한때 '정확한 구문과 올바른 단어'라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파리 교외 노와지 르 그랑의 쥘페리 유아학교에서 가늘고 긴 청, 지느러미 모양의 처양, 분리시킨 볼륨, 잘라내고 총지게 만든 벽면 등 낯익은 현대적 언어를 보게 되는데, 이러한 요소들을 어린 아이들의 작은 신체에 맞는 스케일로 결합시켰다. 앞쪽 파사드의 마지막 한 처안은 위로 접어 올려 진입구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로써 빛과 그림자의 멋진 대비가 생겨난다. 각 교실은 아파트처럼 외측 가장자리에 제구획된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아이들이 집에 있는 듯한 느낌을 갖도록 했다.

그의 프로젝트가 모두 그러하듯 쥘 페리 학교는 창 모양의 틈, 좁은 통로, 깊은 처양, 기다란 개구부, 분리면 등을 익숙한 솜씨로 다루어 허실과 실재의 제지 있는 유희를 위한 추상 요소로 이용한 좋은 본보기가 된다. 그 결과 생겨나는 형태의 대화는 자연광에 의해 살아난다. 테라니의 코나스라든가 알토의 클레어스토리, 니아가 아르데코의 창 멀리온과의 연관성을 볼 때 카강의 디자인에서 불필요하거나 스타일 때문에 의미 없이 결정된 부분은 전혀 없다. 각 형태에 대한 결정은 해당 부분의 요구와 프로그램의 기능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건축을 직교하는 두서없는 조각들로 이루어진 도시를 위한 언어로 취급한다. 각 작업은 인간 위주와 동선이라는 규약을 중심으로 구성하지만, 여기에 상호작용하는 기하학적 형상을 위한 열정이 가미된다. 인테리어가 성공한 것은 카강의 부인이자 파트너인 나탈리 레니에의 도움을 받은 덕도 있다. 그녀는 지난 10년 동

안 그의 작업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맡아 왔다. 현대 합리주의자 전통에 대한 카강의 열의는 도시계획의 제약조건을 바라보는 어떤 존중심에서 출발하는 바, 그는 명백히 독창적으로 보이지는 않으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일에 몰입하고 있다. 벽들의 겹 사이의 공간, 빛의 틈새기, 평면의 회전, 볼륨의 메아리, 반복되는 요소들의 변전 등에서 보여주는 기발한 기하학적 유희는 깔끔하게 기계로 다듬은 현대적 특징으로는 우리에게 익숙하나 빛의 선물로서는 천차만 별 새로운 형태를 통해 이루어낸다.

박익 권국성

리처드 헝거슨은 현대건축 비평가로서,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에서 건축역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건축 및 도시공간 저널에서 편집장과 자널리스트로 활동 중이며, 텍사스의 라이스 대학, UC 버클리, 플로렌스의 시라쿠사 대학 등지에서 건축사와 도시사를 강의하고 있다.





# HOUSING ACCORDING TO MICHEL KAGAN

The first 'duty' of the architect and of the entire society is, and always has been, to satisfy this basic human need - to have a roof, a hearth, a protected space, a suitable home providing both a private life and a social connection. Housing of today must respond to contemporary requirements of comfort and adaptability of the rooms, the living spaces, tied to the architectural quality and the hospitality of the premises, to the domesticity of the living spaces. In favoring natural light for the living spaces according to their use, I put into practice my diverse experiences in the field of housing, and in particular, of social housing.

Today, the architecture and urbanism of the city that we must produce can no longer be limited to simplified and idealized situations: they throw us into the complexity of the real world. That is why architecture and urbanism can only be borne of theoretical practice connected to reality. It is not a question of style, but of a critical comprehension, to establish connections between the city and construction, between architecture and sociability, between rationality and use. If the architect must accept the world as it is, he/she must also try to introduce an evolutive dimension, liberating, generous by its own creativity, to face up to contradictory realities.

If we did not yet know what the city of tomorrow will look like, we could give it direction starting with the intelligibility of the public and private spaces, a possible arrangement of place between the near and the far. In spite of the indeterminism of urban policies, to reflect on what the city will become, one must work on its 'foreseeability'. It is this very objective that it is fitting to develop with an architecture at once as an object of identification for the city but also as an urban continuity consolidating its fabric. Today,

the city is constructed from the inside of itself: one must seek out the internal limits to the infinite extension of the contemporary 'città diffusa'. This is the generic question of the entire modern project: to find in each project the fronts of the city, the urban structures in order to influence the development of the city and its cityscape on a human scale.

The respect of urban and environmental proportions, the relation to local context, the orientation in relation to the sun, the use of natural materials in a way adapted to contemporary needs and economy, remain permanent requirements for all construction. The planning of a social housing project in the spirit of durable development is to make choices in concept and execution which take into account particular requirements to obtain a harmonious relation of the buildings with their immediate environment: choosing materials, construction products and suitable methods while being very attentive to the management of water, energy, waste production right through to the upkeep and maintenance, and of comfort as concerns acoustics, temperature, the visual and olfactory senses., surveying sanitary conditions, the air and water quality.

The requirements to which the architect must respond in the realm of housing resides in the execution of a series of objectives to defend, constituting a concrete base of architectural criteria from which it is possible to imagine that which could be the environmental quality of a dwelling:

- conceive the dwelling as a volume and not as a surface area;
- open the rooms onto each other more freely;
- extend the perception of the space by using the geometry of the plan;

- develop rational and flexible constructive frameworks;
- allow for potential modification of the interiors according to the evolution of families;
- create exterior spaces enlarging or extending the interior space;
- use natural light to illuminate the passageways, the entrance hall, the dwelling;
- illuminate damp rooms naturally, especially the bathrooms;
- consider the different exposures of a dwelling facilitating daytime and nighttime activities;
- favor transverse or crosswise space, meaning a living room with a double exposure;
- create semi-public/semi-private thresholds, allowing for community spaces available to the inhabitants.

Such are the theories and practices on which my work is based.



10. Renovation of an Apartment, Rue des Beaux-Arts, Paris 6th Arrondissement, 2005. 아파트 리노베이션, 파리6번가, 2005.  
11. Mini loft a Montmartre, Paris 18th Arrondissement, 1996-1999. 미니로프트, 파리18번가, 1996-1999.



## 건축가, 미셸 카강이 생각하는 주거건축

건축가와 이 사회가 짚어낸 첫 번째 '의무'는 언제나 그랬듯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즉 한 지붕 아래 화목한 가정과 안정된 공간, 그리고 사적인 생활과 사회적 생활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주거는 품격있는 건축공간과 아울러 해당 주거의 가정적, 사회적 성격과 연계해서, 편리한 공간에 대한 현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또한 거실 및 각 방의 기능에 대해 잘 고려해야 한다. 기능에 따라 주거공간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자연 채광을 도입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계획을 통해 쌓은 경험이 활용되며, 특히 임대주택 계획의 경험이 크게 반영된다.

오늘날 우리가 다루는 건축과 도시계획의 영역은 결코 단순화되거나 이상화된 상황으로 제한되기 힘들다. 오히려 현실 세계의 복잡성을 항상 고민하게 만든다. 그와 같은 이유로 건축과 도시계획은 항상 현실과 연계된 이론적 확립일 수 밖에 없다. 이것은 표면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건설, 건축과 사회, 합리성과 사용성과의 관계와 같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비평적 이해에 관한 문제이다. 만약 건축가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자 한다면, 그/그녀는 이렇게 모순적인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창조적이면서도 진보된 생각의 지평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도시의 미래가 아직 불확실하다면, 우리는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이 갖는 특성, 가까운 장소와 먼 장소의 다양한 배치에서부터 출발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 정책의 불확정성에도 불구하고, 향후 도시의 모습을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지력'을 키워야 한다. 도시를 대변하는 오브제로서, 또한 그 도시의 조직을 견고하게 하는 연속성을 지닌 체계로서 건축과 함께 발전하는 것이 이러한 생각의 목표이다. 오늘날 도시는 스스로 발전하며, 우리는 이러한 도시의 내적 경계와 이른바 'citta diffusa'로 정의되는 도시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각 프로젝트마

다 도시의 얼굴과 도시구조를 찾는 것은 휴먼스케일에 맞는 도시의 개발과 도시 풍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이는 모든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이다.

도시 및 환경에 대한 고민, 지역의 도시적 문맥과의 관계성, 일조를 위한 배치의 고려, 시대적 요구와 경제성에 부응한 자연 재료의 사용 등은 현대의 모든 건축에 있어서 항상 요구되는 사항들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에 입각한 임대주택 계획은 새로운 주거 개념의 선택과 함께 대지의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요구 조건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자원, 에너지, 쓰레기의 관리 및 소음, 기후, 시각 및 후각, 위생 문제, 양호한 대기 및 수질 확보 등 다양한 주거 환경 부분의 고려 사항들에 유의하여 적합한 건축자재 및 시공법을 선정해야 한다.

주거 영역에 있어서 건축가가 지켜야 하는 필수 항목은 다음의 목표들을 준수하고 실행시키며, 또한 주거의 환경적 질을 개선하는 상상 가능한 여러 요소들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건축기준 (architectural criteria)을 만드는 것이다.

- 주거를 면적을 가진 평면 개념에서 벗어난 공간의 개념으로 생각하라.
- 각 실들의 문을 보다 자유롭게 개방하라.
- 평면의 기하학을 사용하여 공간의 인지를 확대시켜라.
- 합리적이면서 융통성 있는 구축의 틀을 개발하라.
- 가족의 라이프 사이클 변화에 대응하도록 실내공간의 가변성을 고려하라.
- 내부 공간이 확장될 수 있는 외부공간을 창조하라.
- 복도, 인관 등 거주 공간에 자연 채광을 도입하라.
- 습한 공간, 특히 화장실에는 자연 채광을 사용하라.
- 낮과 밤의 활동적 차이를 고려한 거주 공간을 계획하라.

- 2개 층이 개방된 거실 공간처럼 주거를 가로지르는 통합적 공간을 고려하라.

- 거주자들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쓰일 수 있는 반공적/반사적 공간을 제공하라.

위의 사항들이 나의 주거건축에 있어서 주요 지침이 되는 이론 및 실천 항목들이다.



## CITE D'ARTISTES, PARC CITRÖEN-CÉVENNES, PARIS 15TH ARRONDISSEMENT

contracting authority: SEMEA XV  
deputy contracting Authority: R.I.V.P  
contractor: Michel KAGAN, Architect  
site: ZAC (Area of Concerted Development) Citroën-Cévennes, Rue Leblanc, Paris 75015  
building program: 38 artist studios and 38 associated apartments, a parking lot  
surface area: 9,200 m<sup>2</sup> SHON (not including non-exploitable surface area)  
construction cost: 6,850,205 euros, exclusive of tax  
competition date: 1989  
delivery date: June 1993

### BETWEEN THE NEAR AND THE FAR

Renewing the Paris tradition of artists' studios, the program was comprised of thirty-eight studios and apartments for artists, and twelve family-size apartments. The site is in the fifteenth arrondissement in Paris, and benefits from an urban location both complex and exceptional along the Citroën Cévennes park. The acquisition of this site at ground level was predetermined by urban regulations. The building is situated at the end of a long diagonal which makes up the main part of the composition of the park; it is inscribed in a semi-circle layout designed by the Atelier Parisien d'Urbanisme, APUR (Paris Urbanism Studio), the entirety including an existing building from the post-Haussmann period. Responding to these constraints, the building itself became the entrance to the park. The architectural treatment in front of the park is based on a cylindrical projection, framed by two buildings, one a square plan, the other triangular; the three distinct volumes are structured and articulated by a line of stacked passageways along a distance of one hundred meters. More than a conventional distribution

of apartments, it forms an authentic "architectural promenade", a place for conviviality where the lived experience is the most important. The studios are facing the northern part of the park, while the apartments are organized along the streets. Two small cylinders annex the apartments assuring a liaison with the existing building on St. Charles Street. They engender the long undulating wall which demarcates the property on its side with a garden, much like a signature at the base of the building. Maintaining the dialectic connection of near and of far with its environment, from the domestic scale of the individual apartment of each artist to the scale of the property which extends to the small enclosure in front of the Seine, the structure provides a view of the urban landscape as well as the interior courtyard. The concrete is chiseled in an abstract geometrical expression which changes at the will of the play of shadows and l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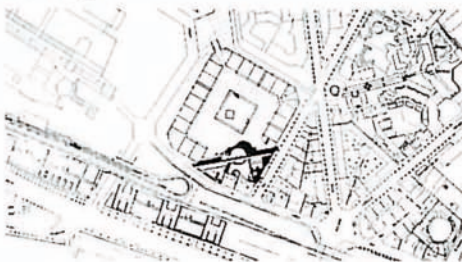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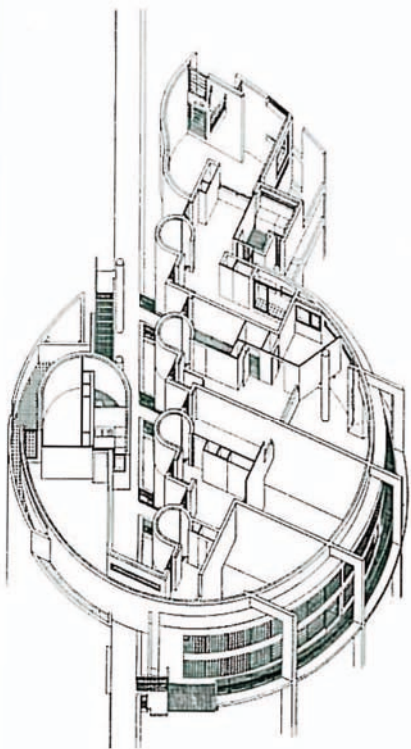
## ‘원’과 ‘근’의 중간

파리 예술가들의 스튜디오를 관유하는 전통을 일신하는 이 프로그램은 예술가들을 위한 38개의 스튜디오 및 아파트와 12가구의 가족용 아파트로 구성돼 있다. 부지는 파리 시내 제15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시트르앵 세벤느 공원을 끼고 있어서 복잡적이고도 태어난 도시 지역의 이점을 지니고 있다. 이곳 대지의 지상권 매입은 도시 규제에 의해 이미 결정돼 있었다. 건물은 공원 구상상 주요부를 차지하는 기다란 대각선의 한쪽 끝에 자리 잡고 있다. 파리 도시계획 스튜디오(APUR: Atelier Parisien d'Urbanisme)가 설계한 이 프로젝트는 오스만 시대 이후에 지어진 기존 건물 1개 동을 포함하는 전체가 반원에 내접하는 형태로 배치됐다. 이러한 제약조건에 따라 건물 자체가 공원으로 이어지는 입구가 됐다. 공원 앞부분의 건축적 처리는 각각 정사각형 평면과 삼각형 평면으로 이루어진 2개 동의 건물을 배경으로 원동형으로 돌출된 부분을 기본으로 삼았다. 이들 세 가지 볼륨은 길이 100m에 이르는 하나의 선을 따라 겹쳐지게 배치된 통로에 의해 구성되고 구분된다. 이 프로젝트는 일반적인 아파트 배치를 넘어 진정한 ‘건축의 산책로’를 이룬다. 삶을 통한 경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향연의 장소이다. 스튜디오는 공원 북부

를 향하고 있으며 아파트는 가로로 따라 배치됐다. 두 개의 작은 원동형이 아파트에 덧붙여져 생 사를 거리에 있는 기존 건물과 확고한 연계를 마련해 준다. 이들은 마치 건물 기부의 표식처럼 정원으로 부지의 측면 경계를 이루는 긴 파동형의 벽을 만든다. 예술가의 아파트라는 실내의 스케일로부터 센 강 앞의 작은 강내로 확장되는 부지의 스케일에 이르기까지 환경과 원형과 근원의 빈틈없는 연계를 유지하는 이 구조는 도시 경관뿐 아니라 옥내의 안들을 바라보는 경관까지 제공한다. 콘크리트는 추상적 기하학적 모양으로 쓰였는데, 빛과 그림자의 변화에 따라 모양이 시시각각 바뀐다.



site plan 배치도



interior perspective view in a core system코어 부분 내부 루시도



front view of cile d'artistes 건물



exterior view of the central core 중앙 코어부분 외관





View toward the inner courtyard of the hall. 국내의 인물을 바라보는 공간





a corridor on the top floor 최상층 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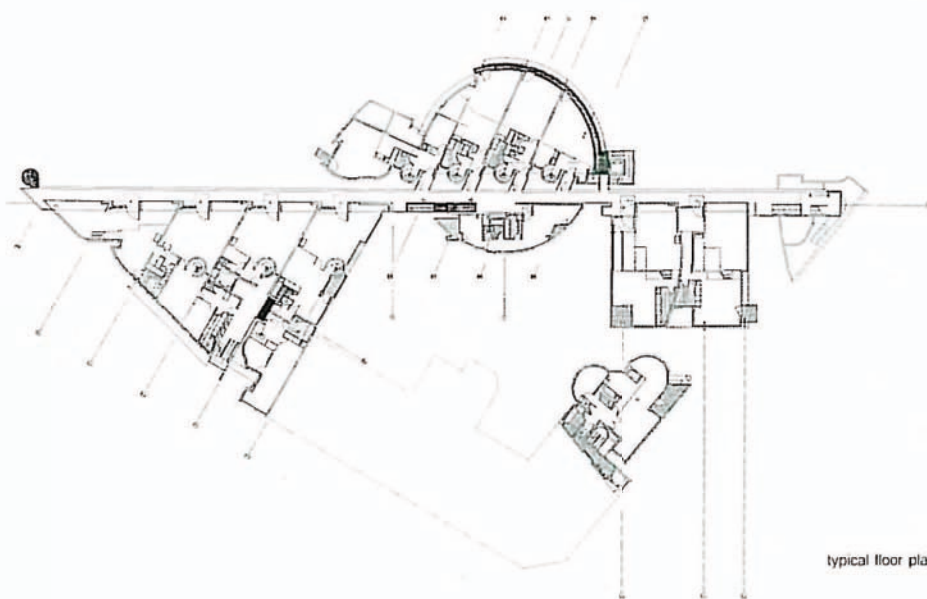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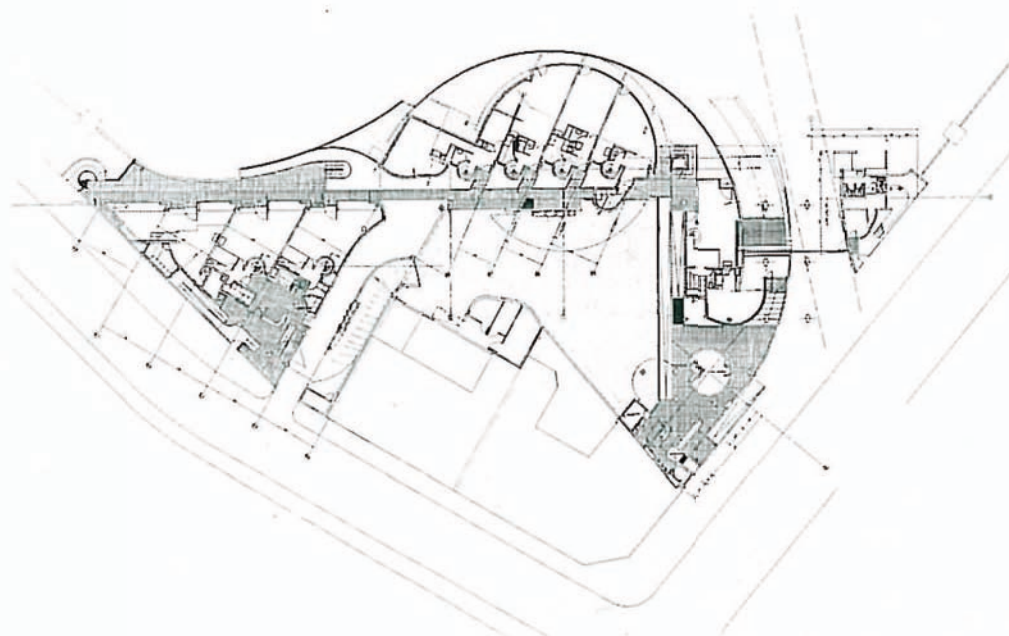
interior corridor 내부 복도



main hall 홀



typical floor plan 기준층 평면도



11 plan 1층 평면도



## 50 SOCIAL HOUSING UNITS, CITÉ FOUGÈRES, PARIS 20TH ARRONDISSEMENT

contracting authority: OPAC de Paris  
contractor: Michel KAGAN, Architect  
site: 16 rue de Noisy-le-Sec 75020 Paris  
program: 50 social housing units, 55 underground parking spaces  
surface area: 3,800 m<sup>2</sup> SHON (not including non-exploitable surface area)  
construction cost: 4,186,344 euros, taxes included  
competition date: 1994 prizewinning project  
delivery date: December 1998

### LIVED ARCHITECTURE

This apartment building of 50 units is situated in the twentieth arrondissement in Paris, bordering the ring road, between the Bagnolet exit and the Lilas exit. The project lies within the framework of a renovation of a social housing project from the 1960s, bringing together 600 units to rehouse on the spot the inhabitants of temporary social housing, the Cité Fougères. The architect and the urban designer managing the operation, Pierre Riboulet, asked the architects to construct buildings on plots to break with the system of bars. The project favored urban continuity to create a real Parisian street. On the ground floor, a foyer thirty-three meters wide, which was not in the program, was executed so that the inhabitants could feel at home in this place, between a public garden and a well-planted street. In the apartments, the living rooms look onto the street and the bedrooms look onto the garden; the kitchens are adjoining the living rooms, separated by sliding doors, and are completed by a small space opening directly onto a terrace where one can eat. Certain large apartments have a central block of bathrooms and closets thus eliminating the inevitable passage through the entrance hall to go from the bedrooms to the living room, creating a looped circuit.

### 생각하는 건축

50가구로 이루어진 이 아파트 건물은 파리 제20구의 바느레 나들목과 릴라 나들목 사이에 자리 잡고 있으며 순환도로에 면해 있다. 이 프로젝트는 1960년대에 시행된 임대주택 사업에 따라 건설된 주택을 개수하여, 임시 임대주택인 시테 푸게르 거주자들을 그 자리에 그대로 총 600가구의 새 집에 입주시키기 위한 리노베이션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사업의 진행을 위한 도시계획가이자 건축가 피에르 리볼레는 담당 건축가들에게 부지여 인자형 방식에서 탈피하는 건물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진정한 파리 풍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 도시의 연속성에 주안점을 두었다. 지상1층에서는 프로그램에서는 없던 33m 폭의 현관을 만들어, 공공공원과 가로수가 잘 식재된 거리 사이에 있는 이곳에서 거주자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했다. 아파트 내부에서는 거실이 거리에 면해 있고 침실에서는 공원이 내려다보인다. 주방은 거실과 면해 있으며 서로 미닫이문으로 분리돼 있고, 테라스로 직접 연결되는 작은 공간도 마련돼 있어서 그 곳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 몇몇 대형 아파트에는 중앙에 욕실과 수납공간으로 이루어진 구역을 마련했는데, 이로써 침실에서 거실로 갈 때 입구의 현관을 지나게 되는 기존의 동선을 없애고 대신 순환형의 동선으로 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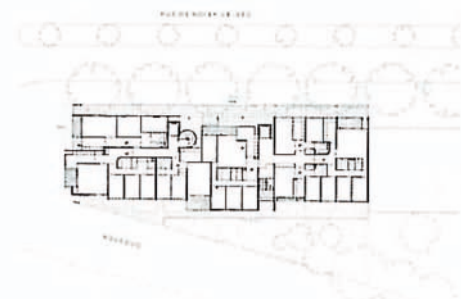


view of side facade 측면 파사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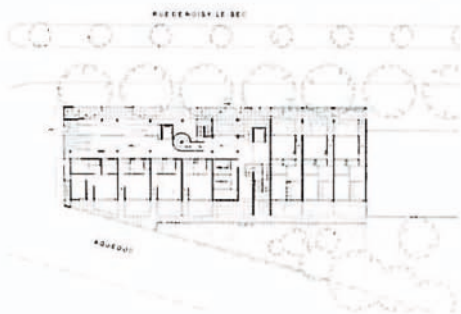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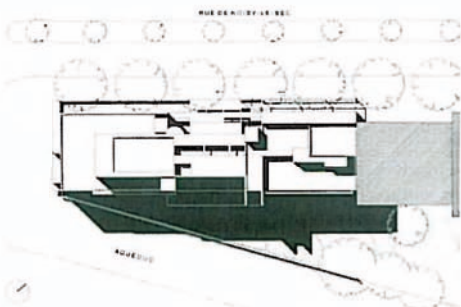




typical floor plan 기준층 평면도



1st plan 1층 평면도



site plan 배치도











## 70 APARTMENTS, PARIS 14TH ARRONDISSEMENT

contracting authority: Private sector  
contractor: Michel KAGAN, Architect  
site: 62-68, rue de l'Amiral Mouchez, Paris 75014  
program: 70 apartments, commercial spaces, parking space  
surface area: 6,100 m<sup>2</sup> SHON (not including non-exploitable surface area)  
construction cost: 5,916,546 euros, exclusive of tax  
competition date: 1995 prizewinning project  
delivery date: January 2000

### THE URBAN GRID

This building of seventy apartments is on Amiral Mouchez Street, in the fourteenth arrondissement in Paris, near the Montsouris Park. The 1970s have left its mark on this street with very tall buildings, breaking on one side with the idea of the urban front. The building is part of an alignment, and fits into this complex and disparate urban context of an unequal quality. It is inserted between two semi-detached buildings, blending in with their relatively high outline, affirming the continuity of the street by the ground floors, and the horizontal fluidity at twenty meters from the central part of the building treated in a grid of white concrete. This grid on the facade comes in front of the balcony-terraces, themselves closed by a simple translucent parapet, to let the natural light penetrate the apartments. It demonstrates both the unity of the building and the individuality of each inhabitant. The upper part of the structure is made up of recessed independent volumes which shelter the duplexes, and conciliate the proportions with the context. The building is accessed by a ramp, then by a foyer parallel to the street that it extends and widens, opening onto a courtyard at the heart of t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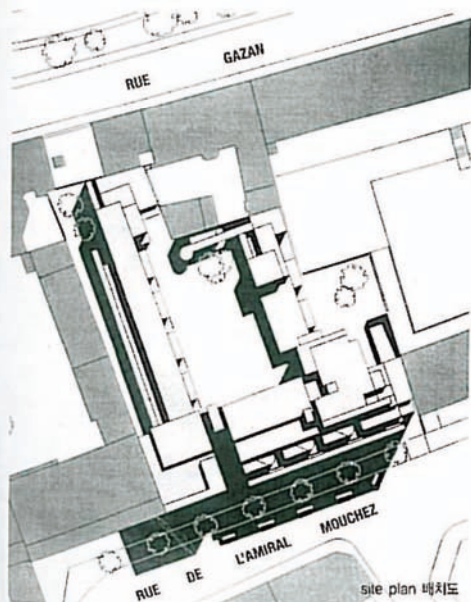
parcel. The interior of the group of buildings presents a very different scale than that of the street, like a veritable Parisian "villa", with bands of houses presenting the possibility of planted spaces. The intimacy of the duplex units on the ground floor is protected by the exterior thresholds situated in the back; the slope of the site was used to situate them a little higher than the level of the courtyard. The introduction of transparency between the street and the courtyard-garden, and a break creating a rupture in the linear form of the facade, accentuates the relation of the city within this small interior of the cluster of buildings. It is entirely constructed on the base of a structural framework of a large dimension, 7.25 meters, with floor thicknesses of 24 centimeters, allowing for broad choices in the internal layout of the units, as well as better sound insulation. The apartments give an impression of spaciousness; they have volumes of double-height and terraces as often as possible. The facades combine white concrete, prefabricated or poured on the spot, with glass blocks and glass slabs, playing with translucence and skewed views through the terraces of the apartments.





## 도시적 그리드

아파트 70가구로 이루어진 이 건물은 파리의 제14구 몽수리 공원 근처 아미랄 무세 가에 자리 잡고 있다. 1970년대는 도시의 전면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이 거리 한 쪽 면에 일련의 매우 높은 건물이라는 흔적을 남겨놓았다. 그 신상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건물은 성질이 균일하지 않은 이질적인 도시적 맥락과 이 거리 속에 잘 어울려 들어간다. 반독립구조를 띠는 두 동의 건물 사이에 삽입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두 건물의 윤곽선과 조화를 이루며, 1층에서 이어지는 거리의 연속성에 부합하고 수평적 유동성은 건물 중심부로부터 20m 떨어져 백색 콘크리트의 그리드로 처리됐다. 파사드에 있는 이 그리드는 발코니-테라스 앞면에 있으며, 발코니-테라스 자체는 단순한 모양의 반투명 난간에 의해 닫혀 있어 자연광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게 해 준다. 이는 건물의 전체적 통일성과 각 거주자들의 개성 모두를 얻는 구조이다. 구조물의 상부는 후퇴시킨 독립 창틀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변과 어울리는 비례를 이룬다. 이들 몸체는 2세대용 아파트들을 수용하고 있다. 건물은 경사로를 통해 진입하며 거리와 나란한 방향의 로비로 이어진다. 길고 넓게 이어지는 로비를 따라 가면 부지 한가운데에 있는 안뜰로 나서게 된다. 건물군의 안쪽은 바깥 거리와는 아주 다른 스케일을 보여준다. 진정한 파리의 '빌라'처럼 주택들이 무리지어 있으며, 식물이 식재된 공간도 가능하다. 1층에 있는 2세대용 아파트의 프라이버시는 후면에 자리 잡고 있는 외부 경계 턱에 의해 보호된다. 부지의 경사를 이용하여 경계 턱이 안뜰의 바닥높이보다 약간 더 높게 놓이게 한 것이다. 거리와 안뜰-정원 사이를 두명하게 처리하고 직선형의 파사드를 끊어 틈을 만들으로써 건물군에 에워싸인 작은 내부 도시의 관련성이 강조된다. 이는 바닥판 두께 24cm, 크기 7.25m에 이르는 커다란 하부구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내부의 세대 배치에서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질 뿐 아니라 빔효과와 또한 향상된다. 아파트는 넓찍하다는 인상을 준다. 2개 층 높이의 볼륨과 테라스를 최대한 갖추고 있다. 파사드는 사진 제작 또는 현장에서 타설한 백색 콘크리트와 유리 블록, 유리 슬래브로 이루어져, 아파트의 테라스를 통한 조망의 왜곡과 반투명성의 유희를 보여 준다.



site plan 배치도



a ramp and a spiral stairway 김시호의 원형 계단



a balcony-terrace 발코니-테라스 공간



lower part of the apartment building 이파르 시승차





G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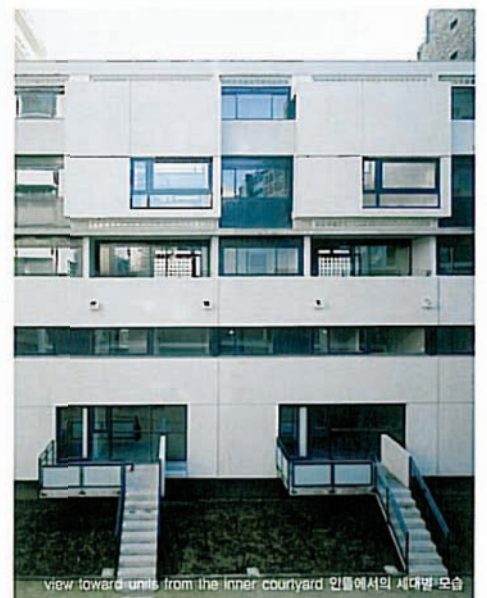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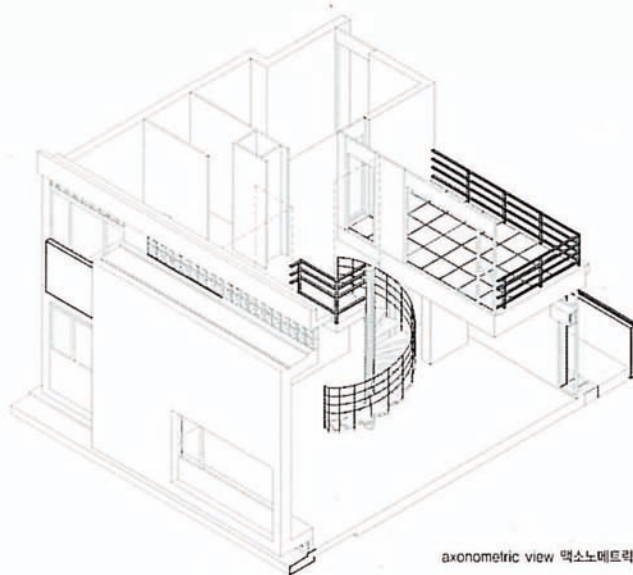


outdoor space of each unit 세대의 외부공간













a maisonette-type family 중층 세대



a spiral stairway inside a unit 세대 내 원형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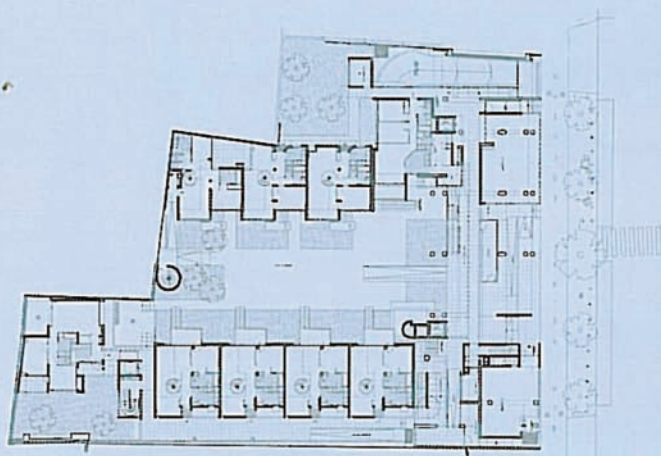


lower part of the apartment building 이파트 저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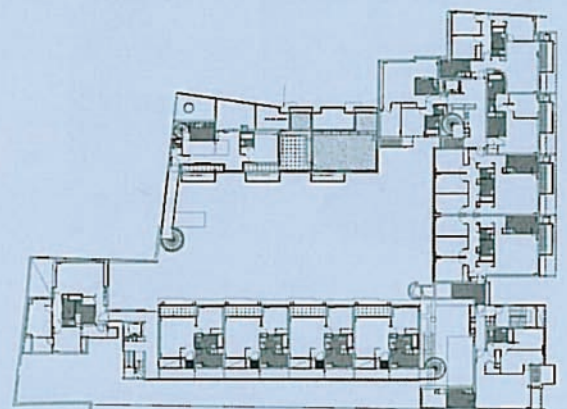




a spiral stairway and juxtaposition of spaces 원형계단과 공간의 중첩



11 plan 1층 평면도



typical floor plan 기준층 평면도





## RENOVATION AND EXTENSION OF A TOWN HOUSE, PARIS 17TH ARRONDISSEMENT

contracting authority: Private sector  
contractor: Michel KAGAN, Nathalie REGNIER, architects  
site: 16, rue Cernuschi, Paris 75017  
program: renovation and extension of a town house  
surface area: 403 m<sup>2</sup>, SHON (not including non-exploitable surface area)  
construction cost: 600,010 euros, exclusive of tax  
date of surveys: 2000-2001  
completion date: 2001-2003

### THE VERTICAL HOUSE

Of an eclectic style, this town house (end 19th - beginning 20th century), presented a facade in cut stone inspired by the Art Nouveau movement, with an artist studio on the top floor. The back facade looking out on the courtyard had a timber framing in bad condition, a courtyard enclosed by parasitic and insanitary structures, and an unworthy environment, impeding natural light from penetrating into the house. From this townhouse divided into several apartments, the project aimed to recover its initial use as a habitation for only one family, to modernize it and to render it inhabitable again. The renovation consisted on the one hand, to conserve identically the streetside facade with the noble adjoining rooms, and on the other hand, to transform the parts adjoining the courtyard facade, to create a patio and accessible terraces refinished with slabs of wood, and fit out with window boxes, as well as a solarium on the roof. The courtyard facade was newly reconstructed, with a metal skeleton, and entirely glazed to compensate for the enclosed feeling and the lack of light caused by the shadow of the high adjoining wall blackened with time. Orientated towards the south, a curtain wall integrates "sunscreen"

shades starting at the second floor, lined with curtains in the bedrooms. Interior transformations illuminated the spaces as much as possible, created volumes of great heights, opened up the views onto the garden, and made the light penetrate profoundly into the dwelling. The zinc roof of the building was demolished on the courtyard side, and was replaced by a rooftop terrace, accessible from the master bedroom on the fourth floor by a metal spiral staircase, making for a small solarium of thirty square me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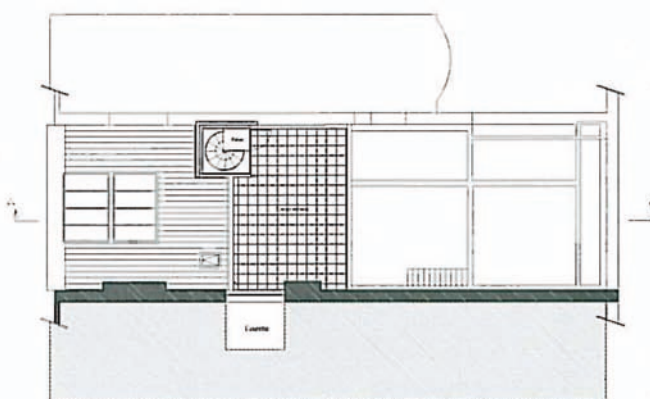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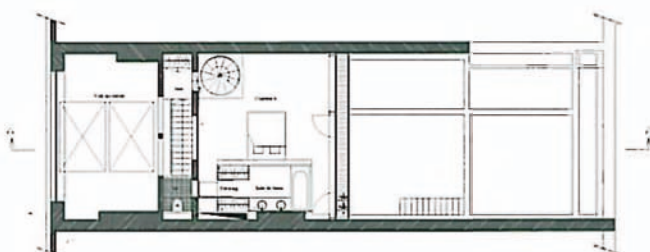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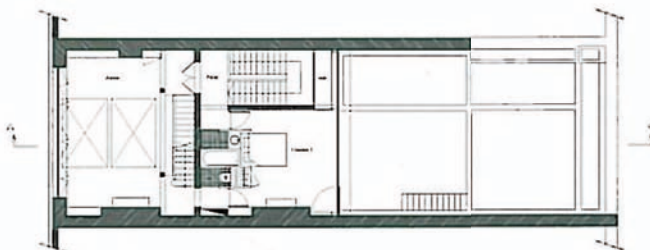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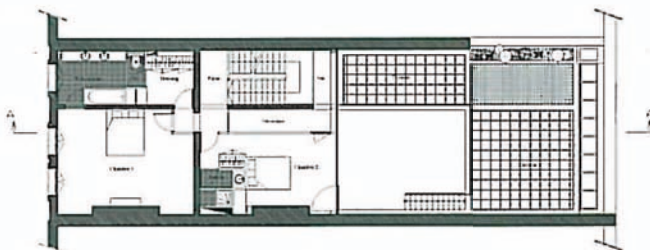
night-time facade 1/12/14 11:15





rear facade facing the inner courtyard. 안쪽에 면하는 건물 뒤쪽 파사드







## 수직의 집

절충식 스타일을 지니고 있는 이 타운하우스(19세기 말 - 20세기 초)는 아르누보 운동에서 영감을 얻은 석조 파사드를 갖추고 있었고 꼭대기 층에는 미술가를 위한 스튜디오가 있었다. 인들을 내려다보는 위쪽 파사드의 테두리는 목조인데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인들은 기생체적이고도 비위생적 구조물에 둘러싸여 있었으며, 자연광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길이 가로막힌 좋지 못한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여러 세대가 입주하기 위해 분할되었던 이 타운하우스를 원래처럼 한 가족만을 위한 주택으로 용도를 되돌리는 한편 현대화하여 다시 거주 가능한 곳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목표였다. 리노베이션은 한편으로는 거리 쪽 파사드의 멋진 인접 방들을 함께 보존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인들 쪽 파사드에 인접한 부분을 변환하고 남면지로 새 단장하여 쉽게 드나들 수 있는 다수의 테라스와 1개의 파티오를 만들고, 또 원도우 박스를 설치하는 동시에 지붕에는 원광욕실을 만드는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인들 쪽 파사드는 금속 골조를 사용하여 새로 만들었는데, 오랜 세월이 겹쳐 변한 놀라운 벽이 인접해 있어 그 벽이 드러나는 그늘로 인한 답답한 느낌과 부족한 광량을 보충하기 위해 전체를 유리로 마감했다. 침실에 커튼을 드리우는 등 2층부터는 남향의 장막벽이 '차양' 기능을 통합하고 있다. 인테리어를 바꿈으로써 공간을 최대한 밝게 하고, 천장과 대면해 높은 볼륨을 다수 만들었으며, 정원을 내다보는 조망을 틔어 주었고, 거주 공간 안쪽 깊숙이 광선이 들어가게 했다. 아연 도금된 건물 지붕 중 인들 쪽 부분을 걷어내고 지붕 테라스를 설치했는데, 4층의 주인 방에서 나선형의 천체 계단을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이 테라스는 30㎡ 규모의 작은 입광욕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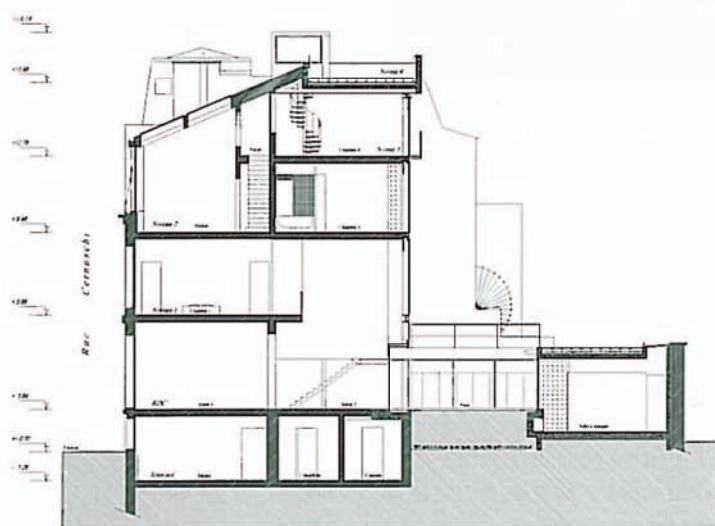


a space for outlook and light 조망과 빛의 공간



overall view of the owner of the house on the fourth floor 4층 주인방 전경













## BUILDING WITH 83 APARTMENTS AND COMMERCIAL SPACES, PORT ST MARTIN, RENNES (35)

contracting authority: OCOL  
 deputy contracting authority: OCODIM  
 contractor: Michel KAGAN, Architect  
 site: ZAC of the Port Saint Martin in Rennes (35)  
 program: 83 condominium units, 12 commercial spaces and offices  
 surface area: 8,410 m<sup>2</sup> SHON (not including non-exploitable surface area)  
 construction cost: 5,335,715 euros, exclusive of tax  
 date of surveys: 2002-2003 completion date: 2003-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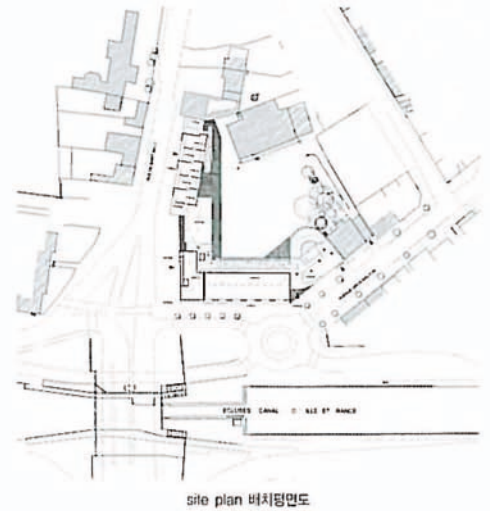
## A RELATIONAL ARCHITECTURE

The housing project in Rennes, is indicative of quality urban development initiated by the city and contracted by the private sector. The project structures a major entrance of Rennes, in conferring an urban presence at the intersection of Canal d'Ille et Rance, and the route going towards St. Malo, as an entrance demarcating a strong front facing the canal and at the bridge, all the while managing the corner of the intersection with transparency. In a strategy of consolidation of the urban fabric, it identifies the existing fabric and configures new limits for it; the project proposes a strong architecture of integration in a splintered urban context. The edifice takes advantage of its remarkable situation on the banks of the Canal d'Ille et Rance, and proposes a typology of apartments that highlight open floor plan apartments and terraces, thanks to a layout distributed by a system of passageways. The choice of a systematic distribution by passageways permits one to respond to the durable development objectives while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the social atmosphere of the building and its environment. Actually, they constitute spaces for conviviality, meeting places, allowing for easy human contact. The terraces run the length of the living rooms: these are spaces to live in, that offer a unique panorama of the city and the canal. The last two stories of the

building are duplex apartments, like houses on the roof made up of a crowning attic. The structural framework of 6,10 meters provides a constructive economy and a flexibility of layout for the apartments. This framework is made up of a lattice on the facade which rhymes with the facade of shadows and light, and results in an "in-between space" between interior and exterior, that is at one and the same time the expression of the internal function, all the while assuring the presence of a strong front facing the canal, giving a new identity to the neighborhood.

The structure was constructed in white and gray prefabricated concrete, highlighted with unrefined concrete elements and with panels stained with a dark sienna brown color, recalling the local sandstone, with fine joinery in a brown aluminium, resulting in a noble esthetic, assured and elegant on the facade, within an economical budget. At the same time, the use of elements, such as the constructive grid in concrete, the cubic volumes of the bedrooms, the panels of glass blocks, creates an abstract composition and studied lines and proportions that participate in the establishment of an appropriate urban scale, and assure the connection of the structure to its near and distant environment. The number of materials used was limited voluntarily with a concern for restraint contributing to the elaboration of

a simple architectonic, contemporary and timeless. The authenticity of the materials, in what they are used for and in putting them to use, the quality of the spaces and their articulation, the precise and pertinent urban scale, are the principal characteristics of this operation, which favor an architecture at once noble and durable, but also convivial and appropri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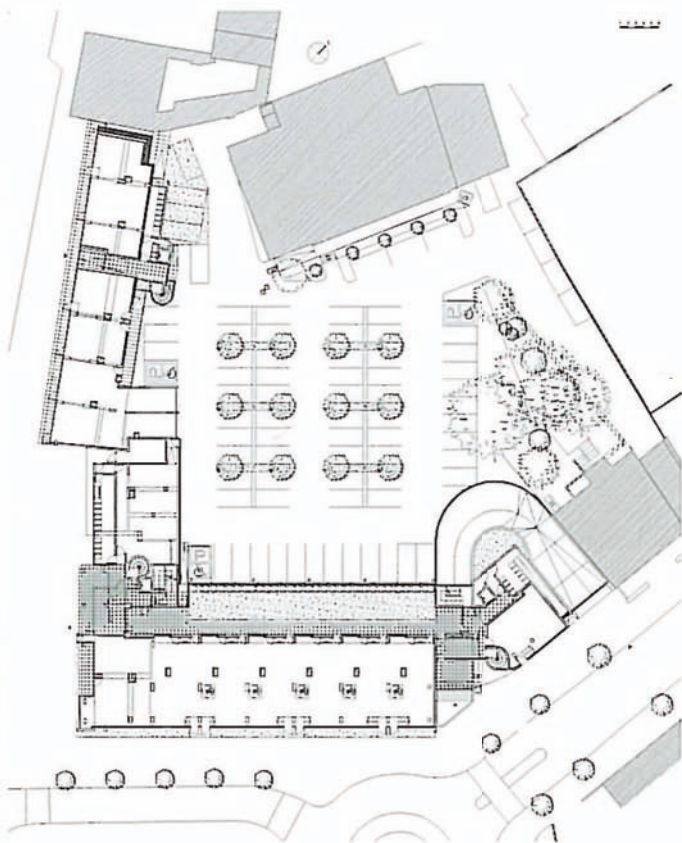
an intermediate space of light connecting the inside and the outside 내부와 외부를 이어주는 빛의 사이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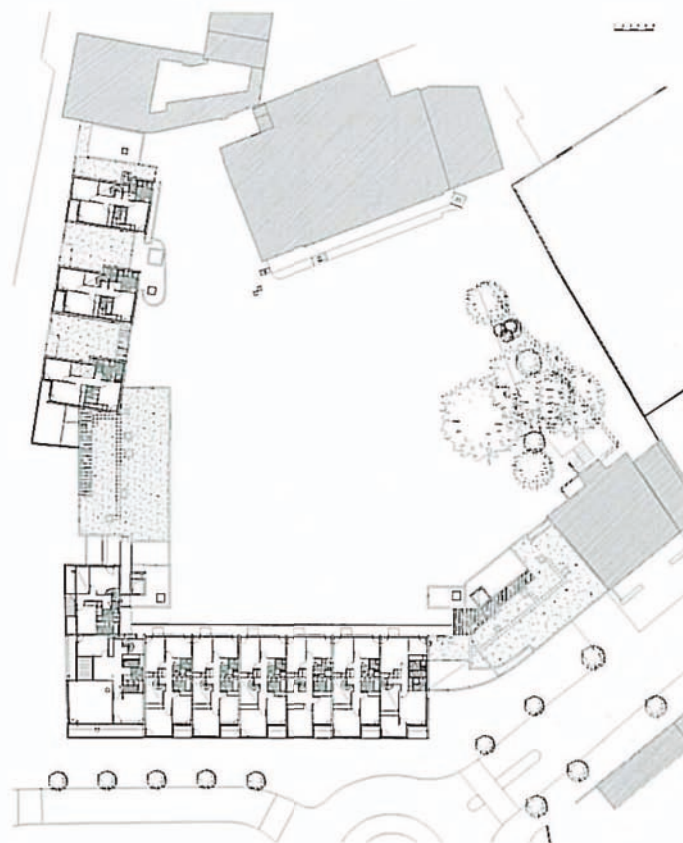
#### 관계의 건축

렌의 주택 프로젝트는 시에서 제안하고 민간 부문이 도금을 맡는 양질의 도시개발 프로젝트가 지나는 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프로젝트는 카난 디유 에 랑스의 생판로 방향의 도로가 만나는 자리에 운하를 향한 강한 정면과 다리 부분에서 경계를 이루는 입구라는 도시적 존재감을 부여함으로써 렌의 주요 진입부를 만들며, 그러는 한편으로 교차점의 모퉁이에서는 투명성을 유지한다. 도시조직을 정비하는 전략에 따라 기존 조직을 확인하고 거기에 새로운 한계선을 설정한다. 이 프로젝트는 조각조각 길러진 도시적 맥락 속에서 통합적인 강한 건축을 제안한다. 이 건축물은 카난 디유 에 랑스의 특 위라는 훌륭한 입지조건을 활용하며, 도로 시스템에 의해 배치가 이루어지는 설계를 바탕으로 오픈 플랜 아파트/테라스를 강조하는 아파트 유형을 제안한다. 통로를 통한 체계적 배치를 택함으로써, 건물과 주위 환경의 사회적 분위기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는 동시에 항구적 개발 목표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통로는 연회와 회합을 위한 공간이 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테라스는 거실에 면하여 거실과 같은 같이 이루어지는데, 사가지와 운하의 독특한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생활공간이 된다. 건물의 최상부 2개 층은 복층 아파트로, 관공과 같은 고미다락으로 이루어진 지붕 위의 집 같다. 6×10m로 이루어진 골조는 시공의 경제성뿐 아니라 아파트의 배치도 유연하게 해 준다. 이 골조는 파사드 상의 격자로 구성되는데, 빛과 그림자로 이루어지는 파사드와 운하가 일치하면서 내부와 외부 사이의 '사이 공간'을 낳는다. 이 공간은 내부의 기능을 나타내주는 동시에 운하를 바라보는 강한 정면의 존재감을 부각시켜줌으로써 동네에 새로운 개성을 부여한다. 구조물은 백색/회색 조립식 콘크리트로 만들어졌는데, 거친 콘크리트 요소와 또 짙은 갈색이 질감이 있어 이 지역의 사람을 안심시키는 패널로 강조했고, 정교하게 제작된 접합부에는 갈색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했다. 그 결과 고상한 멋과 자신감과 기쁨이 파사드에 나타나면서도 경제적인 예산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와 동시에 콘크리트 재질의 조립식 그리드, 침신의 일체적 부품, 튜블리 패널 등과 같은 요소를 활용함으로써 추상적 구성과 장식적 선과 비례가 만들어지는데, 이들은 적절한 도시적 스케임을 형성하는 동시에 건물과 원근의 환경이 건밀하게 연결되게 해 준다. 사용된 소재의 가치수는 전체를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제한시켰으며, 이로써 더욱 현대적이면서도 시대에 구애받지 않는 단순한 건축미학이 완성될 수 있었다. 용도와 용법에서 소재의 확실성, 공간의 질과 명확성, 정확하고 적절한 도시적 스케일 등은 이 프로젝트가 지니는 으뜸되는 특성으로, 고상하고도 든든한 반면 쾌활하고도 적절한 건축을 뒷받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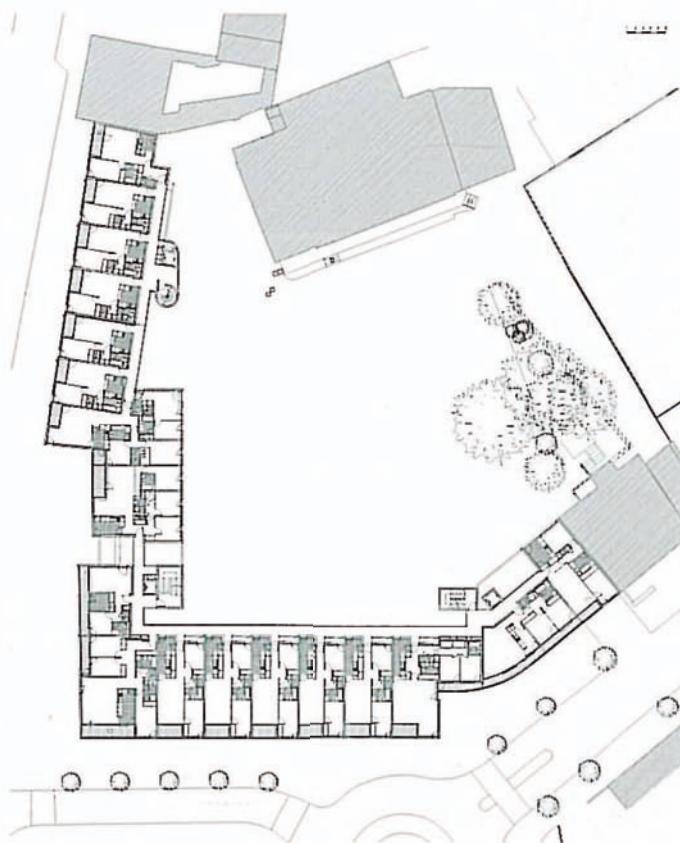
1F plan 1층 평면도



2F plan 2층 평면도



6F plan 6층 평면도



7F plan 7층 평면도





Intermediate space between the interior and the exterior 내부와 외부 사이의 사이공간



Maisonette structure on the top floor 최상층 복층형 구조



Terrace 테라스





corridor and an entrance on the top floor 최상층의 복도와 출입구



rhythm on the facade of upper part 상층부 파사드의 리듬



Maisonette plan on the top floor 복층형인 최상층의 평면도



an outlook from a balcony 발코니의 외부 공간 조망



## RENOVATION OF AN APARTMENT, RUE DES BEAUX-ARTS, PARIS 6TH ARRONDISSEMENT

contracting authority: Private sector  
contractor: Michel KAGAN, Nathalie REGNIER Architects  
site: 5, rue des Beaux-Arts, Paris 75006  
program: Renovation and restructurization of an apartment  
surface area: 170 m<sup>2</sup> habitable  
construction cost: 270,000 euros, exclusive of tax  
completion date: 2004-2005

### SIMPLICITY AND MODERNITY

Situated in an old building dating from the eighteenth century, this project represents a complete restructurization. The necessity to repair the existing floors resulted in the creation of metal flooring to pair with the old, in the splitting of the existing boards in order to eliminate all the internal partitions and to free up the floor plan of its system of compartmentalization thus creating open and fluid spaces, similar to a loft, benefiting from the four orientations of the four courtyards, this, by adding ten centimeters of flooring where necessary to correct the differences in the levels. The continuity of the spaces along the facades create a looped circuit around the apartment, divided according to a cross-formed plan by stone walls that separate the day and night spaces. Metal structural repairs made it possible to open up the spaces generously, and to get rid of the lintels of the doors. The contrast in black and white was sought after for the interior, the floors and the walls were treated in a uniform manner, accentuated by the use of a floor of white mineral, walls finished in white stucco, the doors and kitchen equipment in prelacquered black matte steel, closets in wood, and ceramics in gray and brown tints in the bathroom. To conserve the purity of the lines, the heating was integrated into the floor and ceiling, and the windows dressed with sliding Japanese panels of linen.

### 단순함과 현대성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옛 건물 안에 자리 잡은 이 프로젝트는 철저한 구조 변경을 가한 필요가 있었다. 기존의 바닥을 수리해야 했기 때문에 넓은 바닥과 벽을 이를 금속재 바닥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었다. 내부의 모든 칸막이를 제거하고 기존의 널빤지를 벗겨냄으로써 평면 구성에서 원래의 구획 체계를 일괄히 걷어내고, 네 곳의 안뜰을 향하는 네 가지 방향을 활용하여 로프트와 유사한 개방적, 유동적 공간을 만들었다. 장소에 따라 바닥고의 차이를 바로잡기 위해 10cm 두께의 바닥을 추가로 설치했다. 파사드를 따라 공간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아파트 둘레로 순환하는 고리가 만들어지고, 아파트의 내부는 낮과 밤의 공간을 구분하는 식벽에 의해 십자형 평면구조로 구축됐다. 구조물을 수리하면서 금속재를 사용한 덕분에 공간을 넓찍하게 개방할 수 있었고 문의 상안방도 제거할 수 있었다. 인테리어에서 흑과 백의 대비를 추구했다. 바닥과 벽면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한편, 바닥에 백색 광물재를 사용하고 벽면은 백색 치장벽토로 마감하며, 문과 주방 선반은 검은 래커로 메트 마감한 철재로 제작하고 수납장은 목재, 그리고 욕실에는 화석과 감색조의 세라믹을 사용함으로써 악센트를 주었다. 직선을 깨뜨리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난방은 바닥과 천정에 통합해 넣었고, 창에는 일본식 미닫이 리넨 패널을 얹었다.



overall view of a kitchen and a living room 주방과 거실 전경









room 거실



a bathroom 욕실



a corridor toward a living room from a bedroom  
침실 내에서 거실쪽으로 향하는 출입로



floor plan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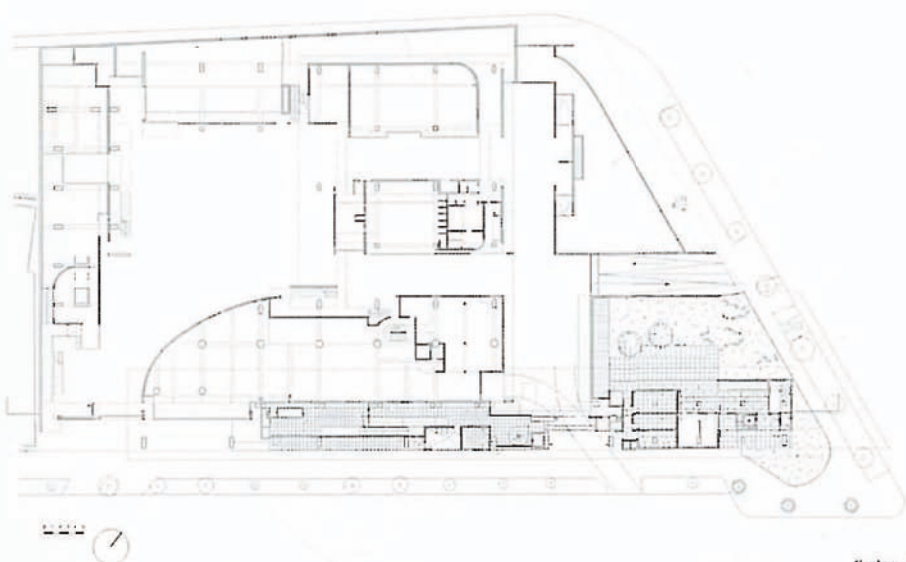






## RESIDENCE FOR STUDENTS AND YOUNG WORKERS, PARIS 13TH ARRONDISSEMENT

contracting authority: RIVP  
 developer: SEMAPA  
 contractor: Michel KAGAN, Architect  
 site: 2-4 rue Bruneseau 75013 Paris  
 program: Dormitory of 100 units, study hall, cafeteria, parking lot with 25 spaces  
 surface area: 3500 m<sup>2</sup> SHON (not including non-exploitable surface area), parking spaces not included  
 estimated cost: 8,372,000 euros, exclusive of tax  
 completion date: 2002-work in progress



II plan 1층평면도



I facade from the main access road 주천일로 피사드



## LAMELLATED BUILDING

The project consists of one-hundred living units for students or young workers as well as a study hall, a cafeteria, additional services, and twenty-eight parking spaces. It needed to complement the architecture of the structure executed for the Cile Technique et Administrative de la ville de Paris, the length of Bruneseau Street, consolidating the urban fabric and rehabilitating the street. The original project foresaw the construction of a group of horizontal buildings, to balance the existing office tower: a vertical reference in the peripheral Paris cityscape whose foundations and parking lots were executed with a view to future extension. The Seine Left Bank area is in full development and has plans to create important university programs, and could benefit in this way from a residential program that participates in urban diversity. The edifice is a long linear structure raised more than eleven meters from the ground, and is twenty-three meters tall. This arrangement allows the structure to escape the presence of the existing building of the emergency services of the ring road. Pilots are arranged rhythmically on the existing foundations. The rooms are spread out on the four upper floors and are orientated either towards the north with a panoramic view of Paris, or towards the south, overlooking the street, towards Ivry. These units are structured by partitions arranged according to a framework of 5.85 meters, and whose load is distributed on two monumental beams. The main part of the structure on two

floors, on the corner of Bruneseau Street and the quai d'Ivry, anchors the building to the ground, and contains the entrance hall, a few offices and housing units, the cafeteria and the recreation space opening onto a sunken patio, and the study hall on the third floor. The facades are in light gray prefabricated concrete;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repetition of an identical module, square in proportion, the filled surfaces respond to the emptiness of the loggias. The north facade is smooth, while the south facade has sun-shading elements. The panels of the facades' modules containing shutters are finished with treated wood and the underneath of the balconies are finished with wooden lathing. Panels of glass blocks and of translucent glass alternate in the lower area and on the gable facades.

### 얇은 조각들로 이루어진 건물

이 프로젝트는 학생 또는 젊은 근로자를 위한 100개의 가독사 공간, 자습실, 카페테리아, 부가서비스, 그리고 28개의 주차공간으로 이루어진다. 원 구조물은 시테 테크니크에 아드미니스트라티브로 라 빌 드 파리를 위해 브뤼세오 거리 전체를 따라 지어졌는데, 이 건축물을 보완함으로써 도시조직을 결합하고 가로에 기능을 되찾을 필요가 있었다. 원래의 프로젝트에서 고층 사무실 건물을 지으면서, 이 건물에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 수평형 건물군을 건설하라는 사상을 예상하고 있었다. 이 건물은 파리 주변지역의 도시경관에 수직의 기준점이 됐는데, 기초와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향후 확장을 것을 고려했다. 셀 간의 최단 지역은 완전히 개

발되어 중요한 대라고 프로그램들을 만들 계획이 되어 있고, 따라서 도시의 다양성에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주거 프로그램은 그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 긴 직선형 구조를 띠는 이 건축물은 지면으로부터 11m 이상 들어올려져 있으며 높이는 23m에 이른다. 이와 같은 상태를 띠기 때문에 이 건축물은 순환도로의 비상 서비스에서 기존 건물에 맡겨 있는 역할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캠퍼스는 기존 기초 위에 리듬감 있게 배치했다. 방은 상부 4개 층에 설치했는데, 파리의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북향 또는 이브리 쪽 거리가 내려다보이는 남향으로 배치했다. 이 방들은 5×8.5m 크기의 하부구조에 따라 배치된 칸막이벽에 의해 구성됐으며, 이 구조물의 하중은 두 개의 거대한 브 위로 분산된다. 2개 층에 걸친 구조물의 주요부는 브뤼세오 거리와 이브리 부두가 만나는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는데, 건물을 자상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입구의 층, 및 개의 사무실 및 몇 가구의 거주 공간, 카페테리아, 지면보다 낮게 설치한 피티오를 할 개방된 레크리에이션 공간, 그리고 3층의 자습실을 수용하고 있다. 파사드는 밝은 회색 콘크리트로 사전 제작했다. 창사각을 비례를 띠는 동일한 모듈의 반복을 원칙으로 삼아 구성된 파사드의 세련된 표면은 로지아의 광택에 대응된다. 북쪽 파사드는 매끈한 반면 남쪽 파사드는 차양 구성을 하는 오소를 갖추고 있다. 파사드를 구성하는 시터를 갖춘 모듈은 범부채리한 목재로 마감됐으며, 발코니 하부는 나무를 얹어 마무리했다. 낮은 구역과 북쪽 파사드 위에서는 동유리 패널과 반투명 유리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floor plan 평면도



a roadside perspective view 도로측 조망도



## 100 APARTMENTS, ZAC OF BEAUREGARD, RENNES (35)

contracting authority: OPAC of Ille et Vilaine region  
 contractor: Michel KAGAN, Architect  
 site: ZAC (Area of Concerted Development) of Beauregard, Rennes (35)  
 program: 50 social housing rental units, 50 condominiums  
 surface area: 7398 m<sup>2</sup> SHON (not including non-exploitable surface area)  
 estimated cost: 6,965,000 euros, exclusive of tax  
 competition date: January 2006 prize-winning project  
 completion date: work in progress



1f plan 1층 평면도



overall view from the main road 주도로를 전경



## GARDEN CITY

The project is the last urbanized cluster of buildings situated to the extreme northwest of the sixth section of the ZAC of Beauregard, at the northwest periphery of Ren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ZAC tend to develop a "soft" urbanization which associates a very strong idea of the landscape to the urban concept. In this way the project developed the concept of open groups of buildings; a hierarchy of roads; an importance given to planted hedgerows, to the service roads, to the footpaths and to bicycle lanes, in addition to the major routes; and of the main urban park. This confers a "garden city" character to the neighborhood, allowing one to imagine the "optimum" conditions of life, with a very strong connection to nature, while benefiting from all the advantages the proximity of the urban structure, located at a very close distance from the center of Rennes.

The project created considerable urban fronts on the two major routes which determined the placement of the apartment block, meaning the Bois Labbe avenue, orientated towards the west, and Amiral Gaspard de Coligny Street towards the north. The square set up this way generated the dimensions of the block, and orientated the courtyard towards the southeast providing the best sunlight conditions. To the north, the building acts as an urban front. The west facade was planned with a break in its central section all the while maintaining the architectural continuity, yet providing an east-west exposure for a maximum number of apartments. The building complex ends with two symmetrical plots exposed towards the south in the Beauregard park, forming an open entranceway. In this configuration the building situated to the north of the complex also opens onto the park much like a scenic backdrop. To the front of the park, a succession of garden plots open the parcels to the south, and alternate constructions with plant life, in a balance of city/nature in harmony and in continuity with

the surrounding wooded landscape. This is an open and permeable project, integrating exterior spaces, gardens, terraces, patios, along the depth of the structure, with the systematic attribution of an exterior space to each apartment, both on the ground floor and on each story. The facades express the structural frame treated in white or a very light gray concrete which alternates with prefabricated concrete panels, treated and tinted in the local colors of a reddish-brown sandstone, creating lines, proportions and a palette for the entire operation. The low skirting walls, or low retaining walls, of locally cut reddish-brown sandstone go well with the walkways and hedgerows, pointing out the differences in levels between the upper garden and the lower garden, to assure a continuity throughout the exterior spaces, from the street through to the interior gardens. The quality of the environment was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e earliest stages of conception of the project, with a concern for the constructive rationale, for simple solutions, and for robust and lasting materials.

## 정원도시

이 프로젝트는 렌의 북서측 언저리에 있는 보르가르의 제6장비구역 북서 끝단에 자리 잡은 마지막 도시구역이다. 경관에 대한 아주 강한 관심을 도시개념과 연계시키는 '부드러운' 도시와 개발 상황이 이 정비구역의 특징이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 이 프로젝트는 개방된 건물군이라는 개념을 개발하고, 다양한 계층의 도로를 만들어, 간선도로 외에도 산울타리 식재, 측면도로, 보행로, 자전거 도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중요한 도시공간이라는 개념을 개발했다. 이로써 이 동네에 '정원도시' 성격을 부여하게 되는데, 렌 중심부에 대단히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도시구조에 근접함으로써 얻는 모든 이점을 누리는 동시에 자연에 대한 매우 강한 인계를 이용으로써 '최적의' 생활 조건이란 과잉 무엇일까 상상하게 만든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두 개의 간선도로 상에 상당한 규모의 도시 전면을 만들었는데, 아파트 블록의 배치를 결정지은 이 두

도로는 서쪽을 향하는 브와라브 거리와 북쪽을 향하는 아미랑 가스파르 드 콜리니 거리이다.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정사각형에 따라 블록의 크기가 결정됐고 안뜰 역시 최상의 입조조건이 확보되는 남동쪽을 향하게 배치됐다. 북쪽으로는 건물이 도시전면 역할을 한다. 서쪽 파사드는 중심부에 들을 두도록 계획됐는데, 건축물의 연속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도 한편으로는 동서 방향으로 흘러 최대한 많은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끔 설계했다. 단지는 보르가르 공원에서 남쪽으로 개방된 두 개의 대향형 구역으로 끝나면서 하나의 개방된 입구가 형성된다. 이러한 배치에서 단지의 북쪽에 자리 잡은 건물은 또 무대의 배경처럼 공원을 향해 개방된다. 공원 정원을 향해 일련의 정원 구역들이 각각의 토지구획을 남북으로 개방시켜 주면서 식물과 건물들이 반감아 나타나게 하여, 도시와 자연이 조화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숲으로 이루어지는 주위 경관과 이어지게 해 준다. 이는 1층뿐 아니라 각 층에서 세대마다 각기 옥외공간을 체계적으로 부여하고 구조물 전체에 걸쳐 옥외공간, 정원, 테라스, 파티오 등을 통합하는 개방적이고 침투성이 높은 프로젝트이다. 파사드는 벽색 또는 아주 밝은 회색 콘크리트로 처리된 건물 구조를 드러내주고 있는데, 이는 프로젝트 전체에 걸쳐 적갈색 사일이라는 이 지역의 색을 때때로 처리하여 사전 제작된 콘크리트 패널과 반감아 나타나면서 선과 배색을 연출한다. 나지막이 단지를 두르고 있는 벽은 울퉁불퉁할 수도 있었지만, 이 지역에서 나는 적갈색 사일을 잘라 만들어 보행로 및 산울타리와 잘 어울리며, 위쪽 정원과 아래쪽 정원 사이의 고저차를 나타내 주면서 가로에서부터 내부의 정원에 이르기까지 옥외공간 전체에 걸쳐 연속성을 확보해 준다. 건설적인 발달과 단순한 슬루선, 그리고 튼튼하고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입두어 두면서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환경의 질을 고려 대상에 포함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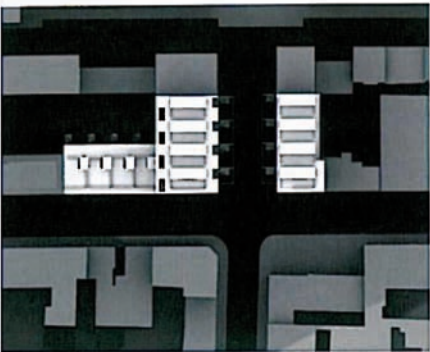


roadside facade 도로측 파사드

elevational section 입면단도







## 50 APARTMENTS AND COMMERCIAL SPACES, CLICHY LA GARENNE

developer: Semereli  
contractor: Michal Kagan, architect  
site: rue Poyer, Clichy La Garenne  
surface area: 4,275m<sup>2</sup> SHON (not including non-exploitable surface area)  
estimated cost: 5,112,990 euros, exclusive of tax  
date: 2005-work in progress





## APARTMENT BLOCK VILLA

The building is situated in the ZAC (Area of Concerted Development) Trouillet-Fouquet, the length of Poyer Street, perpendicular to the boulevard Victor Hugo. It is included in an urban development project that proposes to complete the urban framework with a new street linking Poyer Street to Trouillet Street, in the prolongation of Martissot Street which borders in particular the Maison du Peuple by Beaudouin and Lods. This structure is comprised of 50 condominiums, spread over two buildings each at the corner of the new street. It has commercial spaces on the ground floor on Poyer Street, as well as private gardens attributed to the ground floor apartments, like a "tree-planted breath" on Martissot Street, a major road.

The building is composed essentially of duplex apartments so that the idea of a "apartment block-villa" could take shape, like houses stacked vertically, taking into account the template of the urban project, going from a small building of five floors to a Haussmann-like building of nine

floors. The apartments are systematically of a double orientation, looking onto both the street and at the interior courtyards. Certain duplexes on the top floors even offer far off views towards Paris. The choice of a duplex typology allows one to escape the surrounding urban density and also use an economical structure of 5.30 meters while suggesting the feeling of a villa of three to six main rooms. The facades express the structural framework enlivened by terraces and the visual play of wooden shutters which provide a use adapted to each unit and a particular homelife to each apartment.

### 아파트 블록 빌라

건물은 도시 프로젝트라는 기본 틀을 전제로 5층짜리 작은 건물에서부터 9층짜리 오스만 식 건물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복층 세대로 구성되어, 마치 수직으로 쌓아올린 단독주택과 같은 '아파트 블록 빌라'라는 개념이 구체화될 수 있게 했다. 각 세대는 계획적으로 가로와 내부의 안쪽 양쪽 모두를 바라보게끔 배치했다. 최상층에 있는 일부 복층세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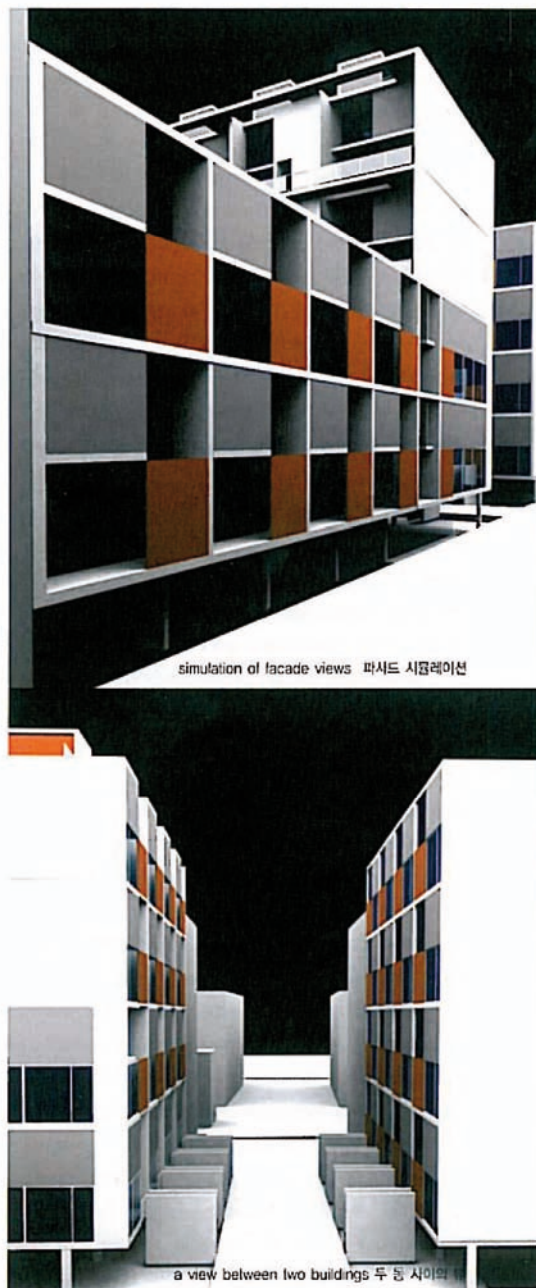
는 멀리 파리도 바라볼 수 있다. 복층이라는 유형론을 선택함으로써 주변의 밀집된 도시로부터 벗어난 수 있게 하는 한편 5×30m 규격의 경제적인 건축구조를 사용할 수 있는 동시에 3개 내지 6개의 방을 갖춘 빌라 느낌까지 줄 수 있다. 파사드에 표현되는 건축구조는 테라스의 목재 셔터의 시각적 유희에 의해 활기를 띤다. 목재 셔터는 각 가구별로 맞는 용도를 부여하고 각 세대에 특별한 안락함을 가져다준다. 이 건축물은 새로 건설된 거리의 모퉁이에 각기 자리 잡은 2개 동의 건물에 걸쳐 배치된 50가구로 이루어진다.



aerial view of the site 부지 항공사진



floor plan 평면도



simulation of facade views 파사드 시뮬레이션

a view between two buildings 두 동 사이의



# INTERVIEW : DISCUSSION WITH MICHEL KAGAN ON ISSUES OF CONTEMPORARY RESIDENTIAL ARCHITECTURE IN KOREA

by Jeong Jae Heon, SAKHU

**01** In your architectural works, three characteristics are distinguishable: 'excessive segmentation', 'refined proportion', and 'exquisite sculpture', while sculptural exploration seems to be a priority issue. Even though there exists no perfect architectural theory or belief, critics often criticize those who show too much devotion to an original architectural expression, 'sculpturalism' without concerning factors less related with architecture itself. They put them in a term, 'formalist' for lacks of world view or narrow thoughts. As a sculptural explorer, how can you speak for yourself and so-called formalists against those critics?

It seems to me that this question reveals the contradictions and paradoxes of current architectural culture. The first paradox is the incredible effort of contemporary architects who try to escape the avatars of the 20th century by rejecting the modernity of the great masters. Our contemporary culture is eclectic: it is media-savvy and easily absorbed. Today we recognize that the democratization of the image has engendered a narcissistic sensationalism of "art for art's sake," with the opportunistic strategies that go along with it. The second paradox is the existence of an ethics-based architecture that seeks the authentic. Its persistence as Kenneth Frampton's "critical regionalism" is thought to demonstrate a necessity. As Richard Long correctly said, "attitudes create forms."

On one side are those who participate in the same protean movement, that of the libertarian tyranny of "anything's possible", or of the non-choice. It is radical kitsch, the omnipresent, untroubled seduction on the world architecture scene. It is expressed through two-dimensional images, a total disconnection between structure and envelope, indifference to program, a willful privileging of the ephemeral aspect of appearances, provoking the isolation of the project from its environment, toward a new *tabula rasa*, creating a universe in perpetual evolution, responding to the notion of "emerging cities."

On the other side are those who conceive of architecture with three-dimensional formal criteria that guarantee the coherence and pertinence of its forms. For them the recognition of form depends on the existence of a founding principle. It produces a situated architecture that inscribes itself in the Vitruvian constraints, and the realities that determine it. Between these two extreme poles, who are the real formalists?

Beyond these paradoxes the question evokes the possibility of architectural expression as sculpture. If one considers sculpture in terms of means and the mathematical and geometrical relationships between solid and void, absence or presence, gravity

or lightness, limits or the infinite, light or mass, depth or surface, concave or convex... one can consider that my concept of architecture is the instrumentalization of a formal language, of which the objective realities are those of an aesthetic program, establishing continuity or rupture between interior and exterior, questioning orientation, light, context. This exploration is an investigation of the complexity of reality in our society, and of the laws and formal principles that can be a part of it, with care to elaborate an art of living, a new aesthetic, another modernity, in the lens of universality.

**02** In France, those who are influenced by early works of Le Corbusier are called 'Neo-Corbusier'. This nickname seems to include a negative meaning that they are copying the works of Le Corbusier. In a sense, it is natural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imitation and creation is confusing and unclear among the works of architects who use architectural languages in common. Please tell us your opinions as an architect who is greatly influenced by Le Corbusier and his works.

"To imitate is to understand," said Andr   Lhote, theorist of Cubism. And I would add: to understand is to do differently. To understand Le Corbusier does not imply that one does Le Corbusier. In my work as an architect it is difficult to see a direct resemblance to a specific building by Le Corbusier. I am equally indebted to Terragni, and I hope someday I will be to Barragan. My debt toward Le Corbusier is not directly visible. It is a source of mental inspiration that has permitted me to imagine certain spaces and not to reproduce forms.

For example, I designed a university building at Cergy-Pontoise. One of the main sections of the hall is inspired by the villa at Carthage, at another scale, with a staggered superimposition of levels from the ground to the terrace. This is a proposition about the continuity of space in section, not in plan, and it has a fantastic spatial richness. This section has become an element of language that one can instrumentalize. Nevertheless, I did not construct a building that resembles that house.

Le Corbusier is certainly one of the freest figures of all of 20th century architecture. He never ceased to invent, to renew his language. To be convinced of this, it is enough to consider the period that goes from the 1920's to the 30's, today often rejected by the critics, the so-called "white" or "purist" period, which is a reductive view. In the space of five years he completed Villa Savoye, a white house, but also the villa of Mandrot at Pradet and

the villa at Mathes, in stone and wood; the weekend house at Saint Cloud, in brick and Catalan vaults, covered with turf; the Clart   building in Geneva, an entirely metallic structure, with glass block, wooden balconies, and red shutters, that many contemporary architects would not be ashamed to call their own. At that point in his work, his thinking was already of infinite diversity, the vocabulary already in place, and yet the production still in process.

Who today is capable of such intelligence, of such invention? There are a thousand Le Corbusiers, just as there are a thousand Picassos. Beyond the diversity of styles and individual expressions, however, is there not in architecture the possibility of a universal language? How can we communicate if everyone speaks a private language; if there is not the recognition that allows us to share the very things that give sense to architecture? It is this that makes a work communicable.

**03** I remember you showed a great interest in sceneries of Teheran road in Seoul. You described the urban scenery of the irregular and inharmonious vertical tower clusters in a positive way as 'a phenomenon that un-controlled characters of buildings are standing together, creating a new dynamism'. The recent urban regulations are, however, taking after those of cities in Europe, which emphasize refined virtues of cities and harmonious urban landscape of buildings with stronger restrictions. Considering your early review and the present situation of Teheran road with more restrictions, what do you think about urban vision and virtues of Seoul? Can you say more about urban vision and virtues of other cities in Korea?

I observed that Seoul is a city that is developing in an anarchic and chaotic manner, and is very hard to understand at first glance. The presence of the Han River and the Royal Mountain constitute the city's founding links with its territory. The phenomenon of densification of the more recent neighborhoods has necessitated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of regulation that is able to structure urban development. I was thus able to observe one thing that I have also witnessed in North American cities: the regularity of the grid permits responses to all situations and all speeds of urban growth.

On Teheran Road I was impressed by the regulated accumulation of 100-meter high towers on tight parcels, constituting a regular urban front, a new measure of the contemporary city, that I have never seen anywhere else, with a relationship between building



height and street width that permits pedestrian movement through the city. A tower of 100 meters is a reasonable urban scale: the building corresponds to the scale of its context. As a consequence, adjacent neighborhoods seem to be able to develop at more modest, traditional scales, creating a very lively contrast between Teheran Road and the more working-class residential zones. This association of clear and precise fringes, with urban layers that are constituted of built depths, is very viable for creating a mix of programs and renewable, manageable urban tissues.

**04** You once mentioned that importance of utility goes prior to that of functionality in your works. How are they different? And what is the boundary line distinguishing one from the other?

It is important to distinguish notions of use, of domesticity, that establish relationships between the individual, his culture, and his way of life taken as a whole; with respect to the more technical and abstract notion of function. Use is a way of projecting oneself into space, to appropriate space for oneself, while functionalism establishes an "objective" distance from the inhabitant. This does not put the notion of functionality into question, but defines it in a manner that is more complete, sensitive, and perhaps more progressive.

**05** Virtues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are mostly concentrated on use of unique materials and introduction of new effects in outer skins. On the other hand, once essential elements in architecture, such as studies in search of better space, mediation for life and time engaged with spaces, and day-lighting techniques in spaces, are considered old-fashioned. In the trend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what are the meanings or implications of your design and works?

Adolf Loos said that only an object that is in fashion goes out of fashion. To continue with Loos, the question of ornament, seen as a tattoo, and the over-expression of the surface of the skin, whatever its sometimes magical effects, cannot replace the quality of interior space. The techniques and materials that are at our disposal today must also respond to the quality of our environment, and they go beyond questions of fashion and style.

**06** In your design studio, you seem to focus on how to accommodate spatial structure and urban context, essential elements of architecture as mentioned above. As a tutor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do you believe your studio courses are still valuable? Please, explain me and our readers more about your design studio at Ecole d'Architecture Paris Belleville.

The school is the place where the cultural and professional futures of successive generations are in play. As a consequence, the school must always question its goals. It theoretically owes itself to propose one or more of the teachings best adapted to the conditions of practice that will greet the newcomer at the end of his course of studies. The school's questioning must have the quality of anticipating future practices. The student is the project of every responsible school.

In reality, putting this objective to work is very difficult. One strategy consists of giving the student, through the pedagogy of the project itself, the possibility to address the totality of practices and to forge for himself a culture and know-how capable of modifying and adapting itself. The design project is the best way to learn how to learn. In this direction, all scales can be addressed, all types of programs, without neglecting the question of housing that is central. In European culture the spirit of synthesis still exists, that of the technical culture of urban questions, from the landscape to mega-structures. It is essential to be able to respond to the complexity of our contemporary world.

**07** Urban residence in Europe mostly consists of high-density low rise buildings, which is mainly affected by architectural laws and regulations, irrespective of architects' intentions. Some of your works may also have been controlled by these regulations. If it were not for these restrictions, can you give us a picture of utopian residence? How, do you think, our buildings, especially residential, can better off without those regulations?

Over the past decade, together with my students, I have been developing a theoretical investigation of the question of the urban tower, with an approach that is at once urban, structural, and spatial. The tower is an urban and social condenser, in which mixed-use programming is a response to the need for densification of the contemporary city, as an alternative to urban sprawl. It represents a possible way of intervening in historic centers to revive ancient urban cores, and to create public spaces there. The urban

tower is both a support and identifying force in the way it transforms the city. It responds to the goals of sustainable development by addressing the question of density and vertical development, a new reality. Constructing vertically in specific urban zones seems appropriate to mark a place, an urban event, the entry into a city, a square... The condensation of elements along a vertical axis provokes a relationship between the horizontal and vertical sections. The points of view between near and far engender a duality of concept between the regional scale of the city in relationship with the scale of the neighborhood, to renew the "urban fabric" and modify a tissue by affirming a new, urban potentiality.

**08** In massive developments of apartment housing, including new town developments, block types are mostly determined by reiteration of units, and new housing complexes are composed by combination of these blocks types, which has been a routine procedure of housing design since modernism. In cities, however, high rise residential buildings are becoming more similar to office towers with higher density. In addition, works in recently held Pan-Gyo housing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3 Unjung blocks seem to suggest some possibilities for new residential housings in Korea (refer to attached files). What do you think of the situation of Korean apartment housing? Please tell us your opinions about some new possibilities for Korean residential buildings

In the space of 30 years South Korea has greatly transformed itself with the massive, industrial production of housing units to respond to an urgency like that which we witnessed in Europe in the 1950's. This production is still happening today, in an urbanism of large-scale housing projects, which cannot take into account the existing cities, their history, and the complex structures of Korean villages. This is today's challenge: the typologies that one could propose to Korea must take into account the scales of traditional dwellings, from the house to the block. There will be a need to invent intermediary scales, proposing a certain density to avoid urban sprawl, with a rational urbanism, able to take into account the environment, for durable development. Revisiting the question of the "garden city" seems particularly interesting, whether it is vertical or horizontal. Reconsidering the typology of the traditional Korean patio house, in accord with current lifestyles and construction systems, would be a way to reinvent the contemporary Korean dwelling at the scale of man.

French to English translation by Rebecca Williamson



## 인터뷰 : 한국의 현대 주거를 위한 미셀 카강과 나는 대화

정재현, 경희대학교 건축대학원

01 당시 작품에서 보이는 '국도의 분절', '세련된 비례', 그리고 '정교한 조형'은 인상적이다. 강한 인상만큼 조형성 탐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것처럼도 보인다. 건축 외의 문제를 가능한 한 차단하고 '조형성'이라는 건축 자체 표현 형식에 몰두하는 태도를 두고 흔히 비평가들은 형태주의자(formalist)라는 별명을 통해 그 세계관의 협소함을 비난하기도 한다. 사실 어떤 신념이든 보이는 시각에 따라 비난을 받게 마련이지만, 이 경우 스스로를 어떻게 변호하겠는가?

나는 이 문제가 현대 건축의 문화에서 모순적이며 역설적인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첫 번째 모순은 이 시대 건축가들이 격변의 20세기를 뛰어넘기 위해 건축 대가들의 근대성을 거부하는 것이다. 우리시대의 현대 문화는 진지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모방하고, 정보 매체들에 민감하다. 오늘날 우리는 이미지를 통한 표현이 전략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면에 치중해, 소위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국도의 자기도취 성향을 낳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모순은 건축 윤리의 문제이다. 이는 오리지널한 것을 추구하고, 케네스 프렐톤이 말하는 '비평적 지역주의' (역주: 모더니즘 관점에서 지역 전통이나 지역성 수용)라는 형태로 그 지속성의 필요를 보여준다. 이것은 리처드 롱이 표현한 '테도는 형태를 침범한다'라는 표현과도 부합된다.

현현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소위 무정부주의 독재, 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변화무쌍한 흐름에 동침하는 이들이 있다. 그것은 지속 그 자체이다. 세계의 건축계에 담뿍하게 지속되는 유희과도 같은 것이다. 이러한 유희은 두 가지 규모의 이미지로 표현되는데, 하나는 프로그램을 완전히 무시하고 구조의 외피의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건축의 주위 환경을 고려한 원래의 계획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새로운 'tabula rasa'(역주: 탁자 위의 모든 것을 쓸어 없애는 것, 즉 기존에 존재하는 것을 제거하고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를 향하여, '새롭게 탄생하는 도시'라는 이미지에 맞게,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세계를 만들면서 걸 모습은 순간적인 이미지에 치중하려는 노력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건축의 3차원에서 조화와 형태를 강조하고 원칙을 준수하는 이들이 있다. 이러한 부류 내에서는, 한 가지의 형태에 대한 존중은 하나의 기초 원칙의 존재에 달려있다: 이것은 비트루비우스 방식과 건축을 결정짓는 현실성들에 존속되면서 조건외의 건축을 낳게 된다. 이러한 두 가지의 극단적인 부류에서 어느 것이 진정한 형식주의라고 볼 수 있는가?

이러한 모순점들을 떠나서, 이 문제는 조각에서와 같이 건축에 있어서 표현의 가능성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우리가 조각을 대상으로, 그 수학적적이고 기하학적인 방식과 연관성에 관한 용어에 있어서 가독함과 빈 공간, 부재의 존재, 중량과 가벼움, 한계와 무한계,

빛과 질량, 깊이와 표면, 오목과 볼록이라는 것 등을 통하여 표현한다면, 나의 건축 개념은 향, 빛, 주변 문맥에 근거하여 건축의 내부 관계, 연속성과 불연속성 등의 명료한 건축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나의 탐구는 범세계적인 시각에서, 주거예술 및 새로운 미의 새로운 현대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사회의 현실들에 대한 복합성과 그 현실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규칙과 원칙에 대한 하나의 질문 제기인 것이다.

02 르 코르뷔지에 초기 작업에서 영향을 많이 받고 그 언어를 구사하는 건축가들(우리가 흔히 정통 모더니스트라고 부르는 그룹)을 프랑스에서는 네오-코르뷔지에이라 불린다. 여기에는 기껏해야 르 코르뷔지에를 베끼는 사람들이라는 비아냥이 들어있는데, 언어를 공유해서 표현 형식이 비슷한 경향의 건축가들에게는 모방과 창작의 경계 문제가 항상 대두되기 마련인 것 같다. 르 코르뷔지에 그 경향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은 한 사람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기 바란다.

임채파 이론학자 앙드레 로트는 '모방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나는 이해한다는 것은 다르게 행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이고자 한다. 르 코르뷔지에를 이해한다는 것은 르 코르뷔지에와 같은 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다. 르 코르뷔지에의 한 작품만을 가지고 그의 세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나는 주세미 테라니에게 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인젠가는 루이스 비라간의 세계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 보고 싶다. 나는 직접적으로 르 코르뷔지에의 형태 언어를 차용한 것이 아니고 그의 영감의 근원이나 공간 사유방법을 수용하였기에 그의 영향은 내 작품에서 쉽게 인지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나는 '세르지-퐁투아즈 대학'의 한 건물을 설계하였는데, 건물 층의 주 단면은 또 다른 스케일에서 지면에 닿을 때까지 점진적으로 어긋나게 겹쳐 내려오는 '키르타즈' 주택에서 영감을 얻었다. 이는 평면이 아닌 수직 단면에서 공간의 연속에 관한 것이었고, 이 층을 통해 층 공간의 필요성을 표현할 수 있었다. 이 주 단면은 마치 대학에서 언어로 비유한다면, 하나의 사용할 수 있는 언어요소이다. 그렇지만 나는 형태적으로 이 주택을 닮은 건물을 설계하지 않았다.

'르 코르뷔지에'는 20세기 건축사에 있어서 최고의 건축가들 중의 한 명임에 틀림없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반복한 적이 없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창조를 거듭하였다. 1920년대에서 1930년대 초반에 흔히 팔론가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소위 '백색 시대' 또는 '순수 시대'를 재조명해보면 그 비난의 시각들이 편협한 시각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5년 간 그가 하얀 집인 '빌라 사부아'를 비롯하여, 돌집인 '프리데의 빌라 망드로'와 나무집인 '빌라 미뜨', 벽

돌집이며 카탈로니아식 동굴 천장을 넣고 잔디로 뒤덮은 '생 끌루의 주만 지택', 그리고 금속 구조체에 유리 블록, 나무 재질의 발코니, 밝은색의 플라인더가 있는 '제네바의 빛나는 건물' 등을 완성하였다는 사실은 많은 현대 건축가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이러한 경지에서는 그의 사고는 끝없는 변화무쌍 그 자체였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상상이 이미 그 형태를 취하였을 때도 그의 미래의 작품은 아직 미지수로 남기는 것이었다.

오늘날 그 누가 이러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겠으며, 이러한 창조성을 보일 수 있겠는가? 천 가지의 '피카소'가 있는 것처럼 천 가지의 '르 코르뷔지에'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인 표현들과 스타일들의 다양성을 넘어서, 건축에 있어서 범세계적인 공통 언어는 존재할 수 있는가? 건축이 의미하는 것을 공유할 수 있는 루트가 없고 각자가 자기의 언어만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대화소통이 가능하겠는가? 바로 이런 점에서 커뮤니케이션 가능한 작품이 존재하는 것이다.

03 당신은 서울 테헤란로 변 경관에 대해 관심과 긍정적인 평가를 한 적이 있다. 당시 수직 타워의 불규칙적이고 부조화된 건물군이 만들어내는 도시 경관을 '조용되지 않은 건물들의 개성이 한 데 겹쳐, 또 다른 역동성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유럽 도시의 정제된 가치나 건축물들의 조화를 수용하고자 도시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당신이 내린 평가와 이러한 내부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서울을 비롯한 한국 도시의 비전이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울이 알뜰적인 개성이 부족한 도시로 무질서하고 혼란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는 도시라는 점을 보았다. 한강과 안양산은 서울의 역사와 깊은 관계가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전통적인 면을 존속시키지 못한 것 같았다. 그렇지만 나는 서울의 건축에 긍정적인 전망을 두게 되었다. 근래에 급속도로 형성되는 구역들의 높은 밀도는 도시의 구조적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의 필요성을 낳게 하였다. 이는 내가 북미의 도시들에서도 볼 수 있었던 한 가지 점을 주시하게 하였다: 각자 그리드의 규칙적인 선 체계는 급속한 도시 성장이나 그 어떤 상황에도 해답을 줄 수 있는 대안이다.

테헤란로에서 내가 놀았던 점은 좁은 구역 내에서 100미터 높이의 빌딩들이 질서정연하게 밀집되어 있는데 기획된 도시의 모습을 띄고 있었으며, 도로의 넓이는 건물 높이의 1/2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넓게 확 트인 이미지를 주고 있으며 보행인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형태를 갖추었다는 것이다. 100미터 높이의 빌딩은 대도시에서 적당한 높이이다. 도시 건물들의 높이는 도시의 규모에 부합된다.

결과적으로, 고층 빌딩 중심가에 인접한 주변 구역들은 높이가 더



낮은 건물들로 형성되며, 대로와 서민적인 주택가 사이에 더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형성된다. 이러한 도시 중심의 지속적인 건설과 그 주변지역의 융합성은 도시의 재개발과 재구성 등의 도시계획에 있어서 매우 낙관적인 시각이 가능하게 된다.

**04** 당신은 자신의 건축설계에서 기능성(functionality)보다는 유용성(utility)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한 적이 있다. 이 둘은 다를 수 있는가. 그렇다면 기능성과 유용성을 구분 짓는 경계선은 무엇인가.

사실상, 개인에 있어서 그의 문화 및 생활방식, 즉 각 행동의 역할을 구분하는 개념을 이루는 용도와 습관을 상세히 다루어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거주인이 그만의 공간 속에서, 객관적인 물건들이 타성을 불러일으키는 동안, 스스로의 개성적인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객관적인 것에 대해 반항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거를 보다 더 민감하고 만족하게, 나아가 더 발전성 있는 공간으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05** 이 시대 건축의 가치는 새롭고 특별한 재료의 사용과 표피적 효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건축의 원초적 요소로서 공간이나 공간을 풍요롭게 안장시키는 시간 속의 삶에 대한 사색, 공간을 인식케 하는 빛에 대한 탐구는 한물간 구시대적 담론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재의 건축 경향 속에서 당신의 생각과 작업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아돌프 로스는 말하기를 '유행을 타는' 것은 '유행에 뒤떨어지게 되어있다고 하였다. 로스가 말한 것과 같이, 피부 위에 강력하게 표현한 '문신' 같이 때로는 멋있지만 내부의 공간의 질로 대체시킬 수는 없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재질들과 기술을 역시, 우리의 환경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고 유행이나 겉멋을 뛰어 넘을 수 있는 깊은 내면을 담는 것이어야 한다.

**06** 당신이 지도하는 설계 스튜디오의 교육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건축의 근원적 요소인 공간 조직과 도시 컨텍스트(context) 수용에 역점을 둔 듯 하다. 현 상황에서 이러한 교육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는가. 그리고 파리 벨빌 건축대학(ecole d'architecture paris-belleville) 당신의 설계 스튜디오 교육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길 바란다.

건축 학교는 다음 세대 건축가들의 미래 문화의 직업관을 다루는 장소이며, 끊임없이 이 목적에 대한 질문을 하여야 한다. 학교는 학생이 새롭게 다가오는 미래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졸업 때까지 하여야 한다. 이 문제는 미래의 실무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은 학교의 미래이다.

이 점에서 객관적인 판단은 쉬운 일이 아니다. 건축 설계스튜디오에서 학생에게 줄 수 있는 교육 목표 중의 하나는, 학생이 모든 분야를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자신이 스스로를 연마할 수 있게 지도하는 것으로, 문화와 지식을 변화시키고 적용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은 학습의 폭넓은 안목을 증시한다. 다양한 스케일과 모든 유형의 건축물을 다루고 그리고 주거의 문제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 유럽의 문화에는 아직, 기술 문화에서 도시문제, 도시경관에서 거대 경관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사고방식이 남아있다. 현대 세계에 있어서 그 복잡성에 대한 해답을 추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07** 유럽의 도심주거는 고밀도 저층 집합주거의 유형들이 대부분이다. 이는 건축가의 의지와 상관없이 법적 규제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라고도 보여진다. 당신의 작품 또한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도심주거로서 이상적인 주거 모습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다.

10여 년 전부터 제자들과 함께 도시, 구조, 공간적 관점에서 대도시의 초고층 빌딩에 관한 연구하고 있다. 고층 빌딩은 현대 도시의 높은 밀도의 필요성에 부응함과 동시에 첨체된 구조체에 활력을 주고 공공 공간을 창출하는 복합 기능을 가진 도시와 사회의 콘덴서이다. 도시의 초고층 빌딩은 도시에서 도시로 거듭 변화하는 방식에서 하나의 인상적인 힘이자 동시에 원동력이다. 도시의 빌딩은 장기적 개발이 파생하는 문제들 중, 고밀도의 문제를 고층을 통한 수직 확장이라는 형태로 해결책을 제시한다. 특정 도시지역에 수직의 초고층 건물은 특정 정소를 표시하고, 도시 활동을 담고, 도시 입구를 상징하고, 그리고 도시의 장소성을 표시하는 알람판으로도 훌륭한 대상이지 않는가. 수직이라는 요소들의 콘덴서는 건물의 수평 단면과 수직 단면간의 연관성을 넓게 한다. 근경과 원경은 도시적 스케일과 지역적 스케일 관계를 조화롭게 연결 시켜주는 사다리 역할을 창출하여 '도시의 조직'을 새롭게 하고 도시의 놀라운 잠재성을 암시해 주기도 한다.

**08** 국내 신도시를 비롯한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는 단위세대의 반복으로 주거동이 결정되고, 주거동의 집합으로 단지가 조성되는 초기 모더니즘 시대의 주거 형식을 답습하는 경향이 있다. 도심의

경우는 오피스 형식의 도심 고층집합주택 유형이 공존하기도 한다. 한편 최근 국제한상으로 진행된 판교 운중 플릭 3개 지구에서 보이는 새로운 주거 유형에 대한 제안도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한국은 불과 30년 사이 거대한 산업 발전을 통한 급속한 변화와 이에 따른 우리 유럽이 1950년대에 겪었던 것처럼, 다급한 거주 시설이 요청되었다. 이러한 급속 성장이 바로 대거 도시와 문명에 휩쓸려 고전적인 마을이나 전통마을 등을 보존할 수 없었던 이유이다. 오늘날 도전해 볼 과제가 있다: 한국에 제시해 볼 수 있는 유형론들은 전통 주거와 블록형 주거 등의 형태를 고려해 볼 것이다. 그렇지만 아마도 도시의 과대 확장을 피하기 위하여 적당한 밀도를 갖춘, 익서 된 형태를 창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물론 이는 합리적인 도시화, 장기적인 도시개발, 도시 환경 존중 등의 요소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가든 시티 라는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꽤 흥미로운 일이다. '수직적' 이든 '수평적' 이든 마당 있는 한국의 전통 집에 대한 유형론을 우리의 현대의 생활방식과 사회구조, 건축구조 등에 조화를 이루게 하여 재조명해 본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김수: 정재현

정재현은 프랑스 파리 국립건축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건축대학(SAKHU)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간의 삶과 주거성, 땅에 대한 건축의 소용과 반응은 건축가로서 그가 천착하고 있는 개념들이며, 이를 실현한 대표적인 주거 프로젝트로 양수리 두동마리 주택, 전주 지운당, 강화도 동림리 주택이 있다. 최근작으로는 국민대 사회교육원, 디자인 크리에이티브 센터, 우리 요양원 등이 있다.

